

# 인구감소시대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방안 모색

2025. 8. 26.(화) 오후 2시 ~ 5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 국회부의장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백혜련·문정복·이용우

본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5년 고유과제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연구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인 원고입니다. 2025년 말 최종 연구보고서가 출판되기 전까지는 인용·전재·배포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감소시대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방안 모색

2025. 8. 26.(화) 오후 2시 ~ 5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 국회부의장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백혜련·문정복·이용우

사회 권오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시간	내용	
13:30~14:00	등록	
14:00~14:10	개회사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14:00~14:20	축사	
14:20~14:30	사진촬영	
14:30~14:50	기조발표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과 과제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장
14:50~15:00	휴식	
15:00~15:15	주제발표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류 개선방안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15:15~15:30		이주배경청년의 전문기술교육 및 직업교육지원방안 변경환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교감
15:30~15:45		이주배경청년의 고등교육지원방안 김택형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15:45~16:00		지역중심 이주배경청년정책 추진방안 강은이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장
16:00~16:40	부처토론	법무부   안재필 체류관리과 사무관
		교육부   김희준 지역인재정책과 사무관
		노동부   최어지니 직업능력정책과 사무관
		여가부   선강희 다문화가족과 사무관
16:40~17:00	전체토론	
17:00	폐회	





# 차 례

## ▣ 개회사 및 축사

-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 4  
이학영 국회부의장 / 6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서울 중랑갑) / 8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수원을) / 10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경기 시흥갑) / 12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천 서구을) / 14

## ▣ 기조발표

-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과 과제** ..... 17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장

## ▣ 주제발표 1

-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류 개선방안** ..... 31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 ▣ 주제발표 2

- 이주배경청년의 전문기술교육 및 직업교육지원방안** ..... 41  
변경환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교감

## ▣ 주제발표 3

- 이주배경청년의 고등교육지원방안** ..... 53  
김택형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 ▣ 주제발표 4

- 지역중심 이주배경청년정책 추진방안** ..... 61  
강은이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장

## ▣ 부처 토론 ..... 73

- 법무부 | 안재필 체류관리과 사무관  
교육부 | 김희준 지역인재정책과 사무관  
노동부 | 최어지니 직업능력정책과 사무관  
여가부 | 선강희 다문화가족과 사무관





## 개회사 및 축사

-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 이학영 국회부의장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서울 중랑갑)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수원을)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경기 시흥갑)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천 서구을)



# 개호사 및 축사



## 개회사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백일현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인구감소시대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방안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귀한 논의의장을 마련해 주신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서영교, 백혜련, 문정복, 이용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관심 대상으로 등장한 지는 거의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청년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방안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새로운 관심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학교에 다니고 성장기를 보내 이미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한 이주배경청년들은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보다 활용 가능성이 큰 인적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이주배경청년들이 불안정한 체류 및 다양한 문제로 인해 안정적 정착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요즈음, 국내에서 성장한 이주배경청년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미래를 떠받칠 인적자원입니다. 그동안 이주배경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아 보완되어 왔지만, 이주배경청년에 대한 정책은 아직 공백이 큰 상황입니다. 이주배경청년 개인의 삶을 바꾸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이 공백을 빨리 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구감소시대를 마주한 우리 사회에서 이주배경청년은 사실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동료 시민이자 동반 성장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제도와 문화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국회와 정부, 지자체, 교육기관, 산업현장이 함께 할 수 있는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로드맵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주배경청년이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미래를 설계하는” 길을 여는 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이주배경청소년센터 여러분,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 8. 2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백 일 현

## 축 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녕하십니까. 국회부의장 이학영입니다.

「인구감소시대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방안 모색」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서영교, 백혜련, 문정복, 이용우 의원님 그리고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변곡점을 지나, 사회 구조 전반의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체질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은 미래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의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상과 이주배경청년이 마주하는 현실 사이에는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많은 이주배경청년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학업을 이어가거나, 졸업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안정되지 않은 체류 신분은 진로 선택의 폭을 좁히는 현실적인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세심한 정책과 따뜻한 시선으로 이들의 성장을 뒷받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합니다. 이주배경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이들의 안정적인 삶과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논의될 체류 문제부터 교육, 직업 훈련, 그리고 지역사회 정착에 이르기까지의 주제들은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내용들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역시 오늘의 논의를 무겁게 경청하고, 정책적·입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주배경청년들이 교육과 취업의 기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살피고,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 자리가 이주배경청년들에게는 든든한 희망을, 우리 사회에는 미래를 위한 지혜를 더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띤 토론과 소통으로 좋은 결실을 보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5. 8. 26.

국회부의장 이 학 영

## 축 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서울 중랑갑)



안녕하십니까.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인구감소시대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방안 모색” 국회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주신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장님, 이학영 부의장님, 백혜련 의원님, 문정복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국 각지에서 함께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점차 성장하고 있는 이주배경청년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적자원입니다. 이주배경청년이 차별과 배제 없이 당당하게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때, 대한민국의 다양성과 역동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동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은 꾸준히 발전해 왔지만, 정작 청년이 된 이후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체류자격과 비자 문제, 취업 준비와 직업훈련, 언어와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포럼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장으로서 아동과 청소년, 고용과 노동, 이주와 이민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힘써 왔습니다.

이주배경청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우러져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방안들이 현실화되어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이 웃고, 청년이 꿈꾸는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8. 26.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

## 축 사



백혜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수원을)

오늘 「인구감소시대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내외 귀빈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이학영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서영교, 문정복, 이용우 의원님, 그리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와 함께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이미 우리 사회의 구조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19세~34세 등록 외국인과 동포 청년은 약 75만 5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성장기를 보내며 우리 사회의 교육과 문화를 체득한 청년들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따라서 이주배경 청년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역량 강화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체류 자격의 불안정, 고등교육 진학의 제약, 직업기술 습득의 한계, 취업 기회의 협소 등 여러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에서 성장하였음에도 불안정한 체류 자격으로 인해 진로 선택이 제한되거나,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과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곧 사회 전체적으로도 귀중한 인적 자원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 자격 제도의 개선을 통해 안정적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기술 및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또한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맞춤형 학업 지원과 생활 적응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어디에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주배경 청년은 보호와 지원의 대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이끌어갈 주체입니다. 이들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일은 곧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주배경 청년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질적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또한 입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든든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의 논의가 이주배경 청년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설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 8. 26.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 혜련

## 축 사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경기 시흥갑)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국회의원 문정복입니다.

「인구감소 시대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역량강화 방안모색」이라는 시의성 있는 주제로 국회포럼이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와 공동주최로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발제를 준비해주신 전문가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 속에서, 이주배경청년들은 지역사회와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인재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여전히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포럼에서는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류자격 문제, 교육 지원, 지역사회의 역할 등, 이주배경청년들의 사회통합과 관련한 다각적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러한 논의는 정책 설계와 제도 개선뿐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활발한 의견과 실질적인 제안이 오가길 바라며, 참석자 여러분들의 깊은 고민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미래 세대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에서도 이주배경청년들의 현실과 필요를 경청하며, 사회통합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고민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8. 26.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정복

## 축 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천 서구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인구감소시대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방안모색」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 관계자  
여러분과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서영교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 문정복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인구감소시대를 맞이한 한국사회에서  
이주배경청년들은 더 이상 사회의 주변부가 아닌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입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청년연령층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전략적 투자입니다.

그러나 독립적인 삶을 시작해야 하는 청년시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매우 심각합니다. 체류자격의 불안정성은 이들의 자립 의지와 노력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성장한 이주배경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과도한 제재 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류자격 부여방안을 항구적 제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들의 역량강화와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패키지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언어능력 향상, 직업교육, 취업연계, 창업지원 등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주배경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은 이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발전의 토대입니다. 이는 인구감소시대 꼭 필요한 유용한 인적자원을 기르는 일이며, 진정한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나누어질 깊이 있는 논의와 제안들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주배경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8. 26.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용 우





• 기조발표 •

#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과 과제

•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장



기조발표

#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정책의 방향과 과제

양 계 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과 과제

## 01 이주배경청년의 정의와 유형

### ▶ 이주배경청년의 정의

- ‘부모’ 또는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지닌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자
- 외국에서 출생하여 이주한 경우는 미성년 시기에 부모동반으로 입국한 후 국내에서 성장하여 청년의 연령에 이른 자

### ▶ 이주배경청년의 유형

부모 배경	본인 출생지	국내출생	국외출생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부모 모두 외국인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부모 배경	본인 출생지	남한출생	남한 외 출생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결혼 또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결혼	남한출생 북한배경 아동·청소년	북한출생 아동·청소년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결혼가정		제3국 출생 북한배경 아동·청소년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과 과제

## 02 이주배경청년의 규모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반 추정 (한국노동연구원, 2024)

- 인구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에 인구 가중치 적용
- 19~24세 청년 중 가구주와의 관계가 '자녀'인 경우 약 35,000명  
(집단가구 및 외국인가구의 이주배경청년, 본인의 출생 또는 현재 국적이 외국 또는 북한인 19~34세 청년 중 가구주와의 관계가 '자녀'가 아닌 경우는 제외)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기반 추정

- 2025년 기준 19~24세 청년의 경우 2019년 당시 13세에서 18세 => 약 43,517명

▶ 교육부 '다문화학생현황' 기반 추정

- 2025년 기준 19~24세 청년의 경우, 2019년 당시 13세에서 18세 (중, 고등학교 연령) => 약 4,113명  
=> 이주배경청년(19~34세) 집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파악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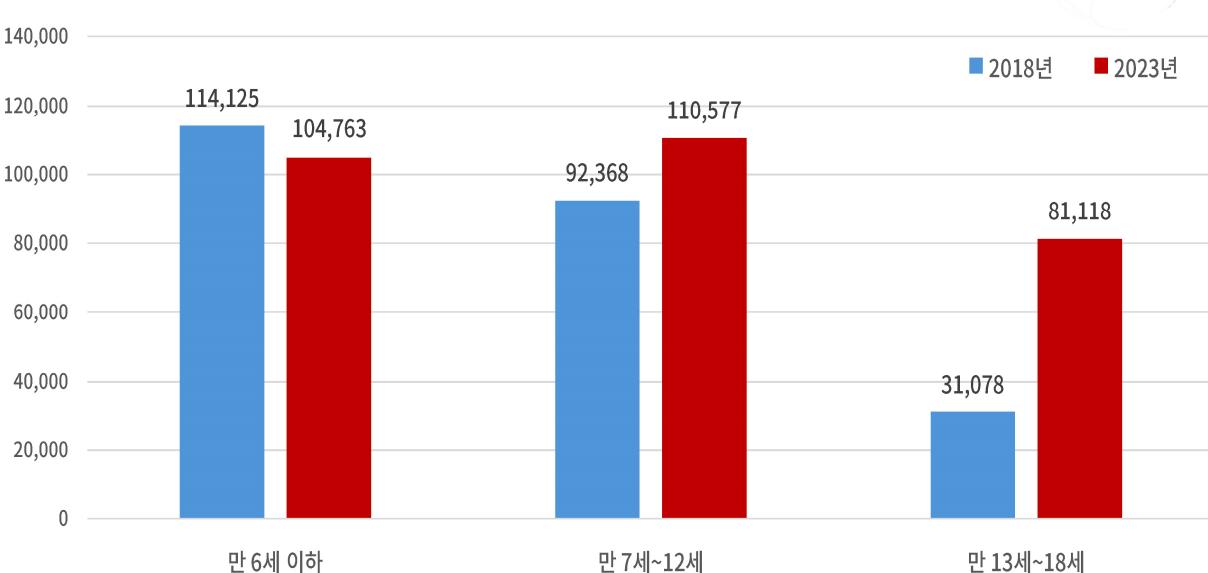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2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과 과제

## 02 이주배경청년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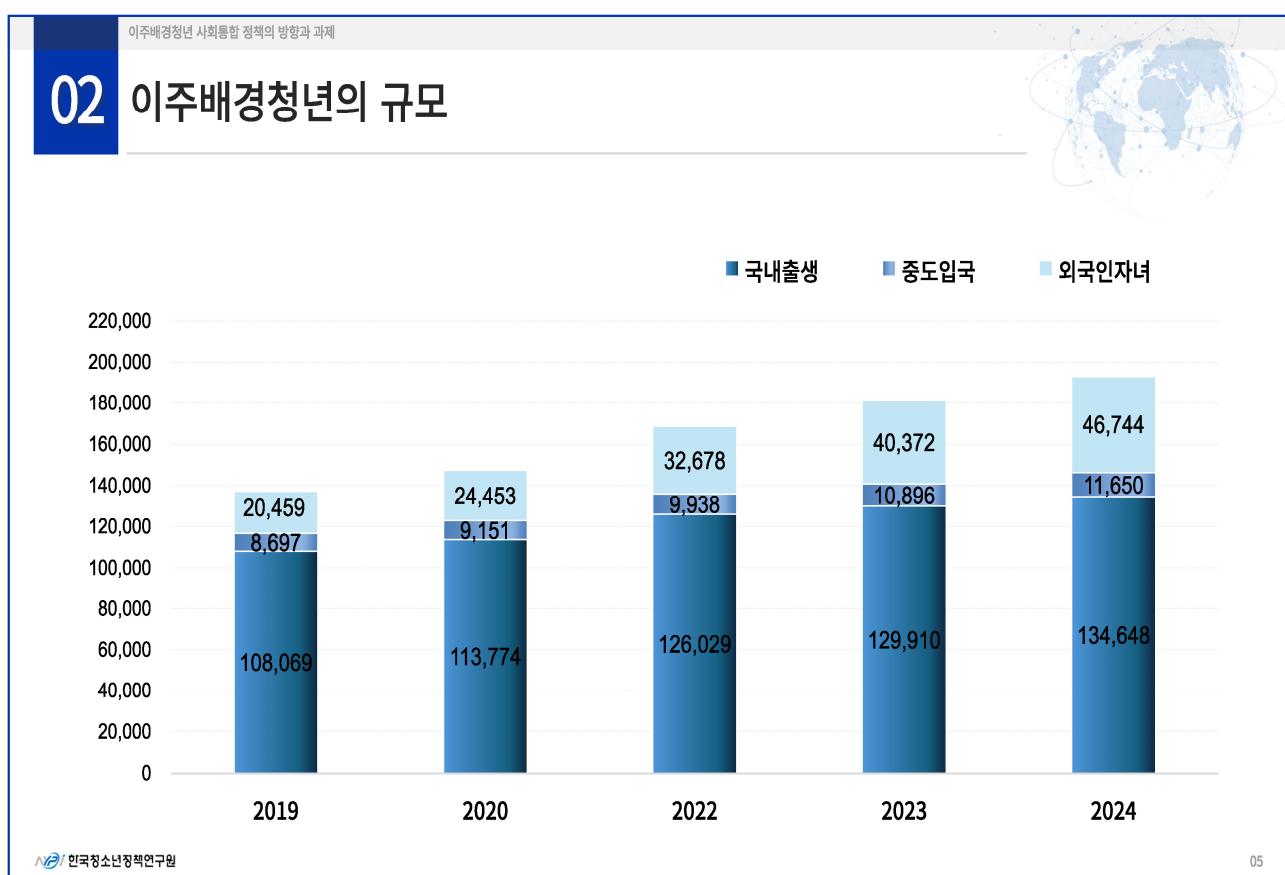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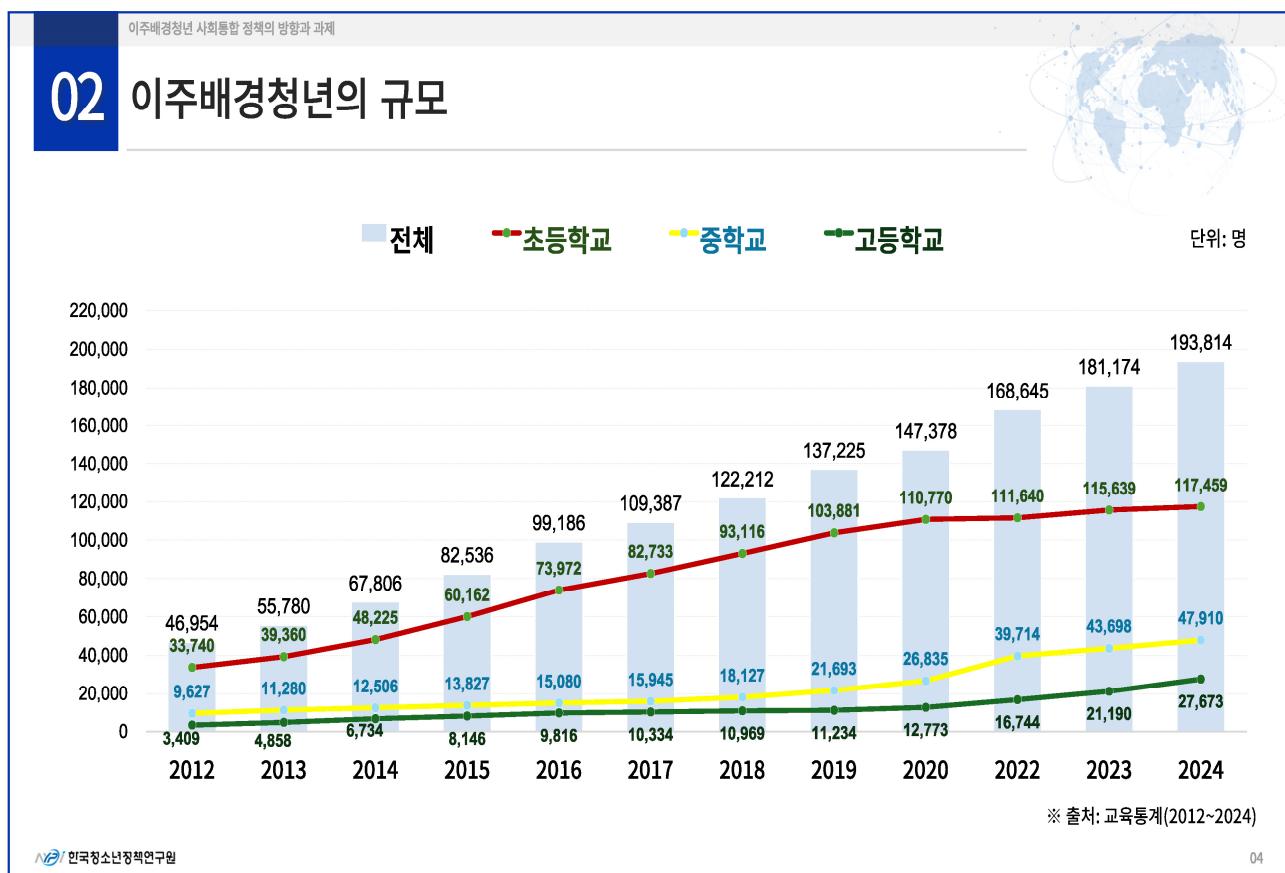


외국인주민현황(행정안전부, 2018, 2023)



연령대	2018년	2023년
만 6세 이하	114,125	104,763
만 7세~12세	92,368	110,577
만 13세~18세	31,078	81,118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3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과 과제

## 03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의 필요성



**대한민국미래보고서, 2015**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50년 한국 사회의 다문화인구 비중이 3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김용현, 세계미래포럼 대표)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이민자인 청소년은 교육성취와 사회자본의 한계로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함



1 이주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사회의 특정한 계층 형성

2 사회적 문화적 수용성의 낮은 수준

3 사회통합의 저해요소

4 한국사회 발전의 걸림돌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과 과제

06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과 과제

## 03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의 필요성



### ▣ 이주배경청년 지원에 대한 시각

- 19세 이상이면 성인인데, 지원을 해야 하나?
- 도대체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하나?
- 지원의 근거는 있는가?(아동연령: UN아동권리협약)
- (외국 국적자)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에게 왜 지원을 해야 하는가?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과 과제

07

## 03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 정책의 필요성



### ▶ 그러나 ...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의 성장으로 청년연령층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이주배경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매우 활발하게 오랫동안 추진되고 있고, 유학생이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정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된 바 없음.
- 청년시기에 자립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함
- 이주배경청년의 사회통합 정책은 한국사회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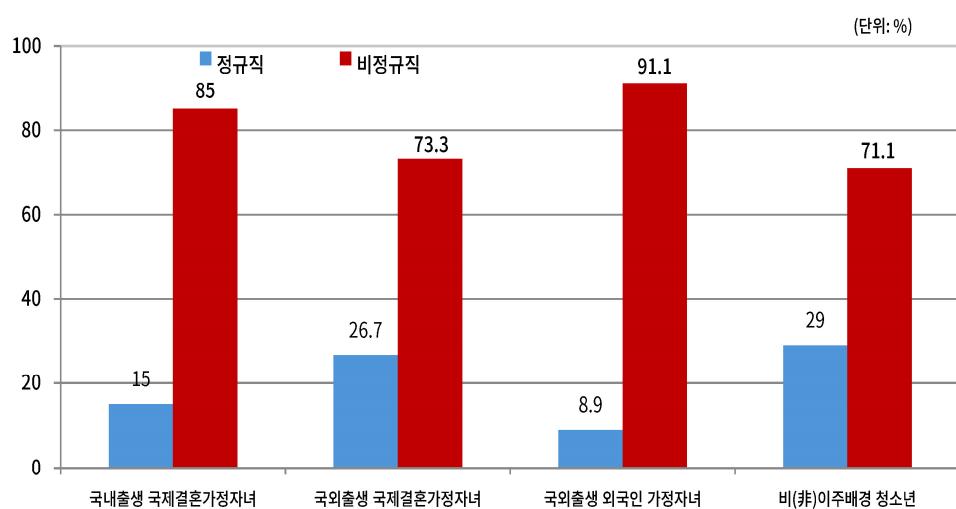
⇒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방안이 필요함.**

## 04 이주배경청년의 생활실태 및 적응현황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 노동형태(15세-24세)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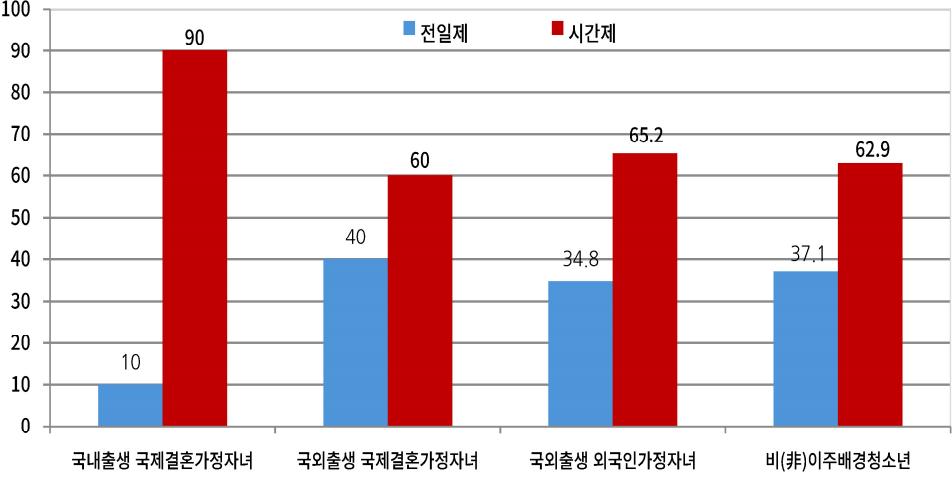
## 04 이주배경청년의 생활실태 및 적응현황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 근로 형태(15세-24세)

(단위: %)



가정형태	전일제 (%)	시간제 (%)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10	90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40	60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34.8	65.2
비(非)이주배경 청소년	37.1	62.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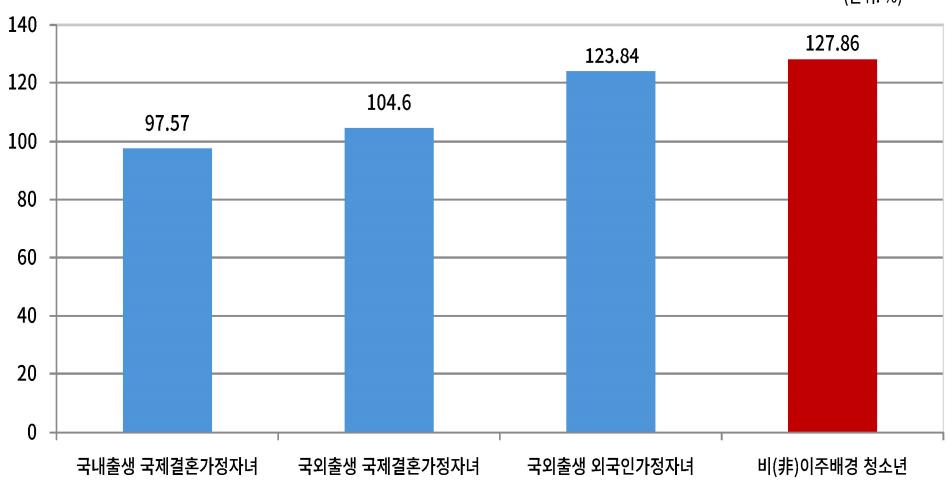
## 04 이주배경청년의 생활실태 및 적응현황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 월평균 소득수준(15세-24세)

(단위: %)



가정형태	월평균 소득수준 (%)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97.57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104.6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123.84
비(非)이주배경 청소년	127.8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1

## 04 이주배경청년의 생활실태 및 적응현황



### ▶ 한국노동연구원(2024): 이주배경청년의 노동시장이행 연구

- 취업 준비 및 일할 때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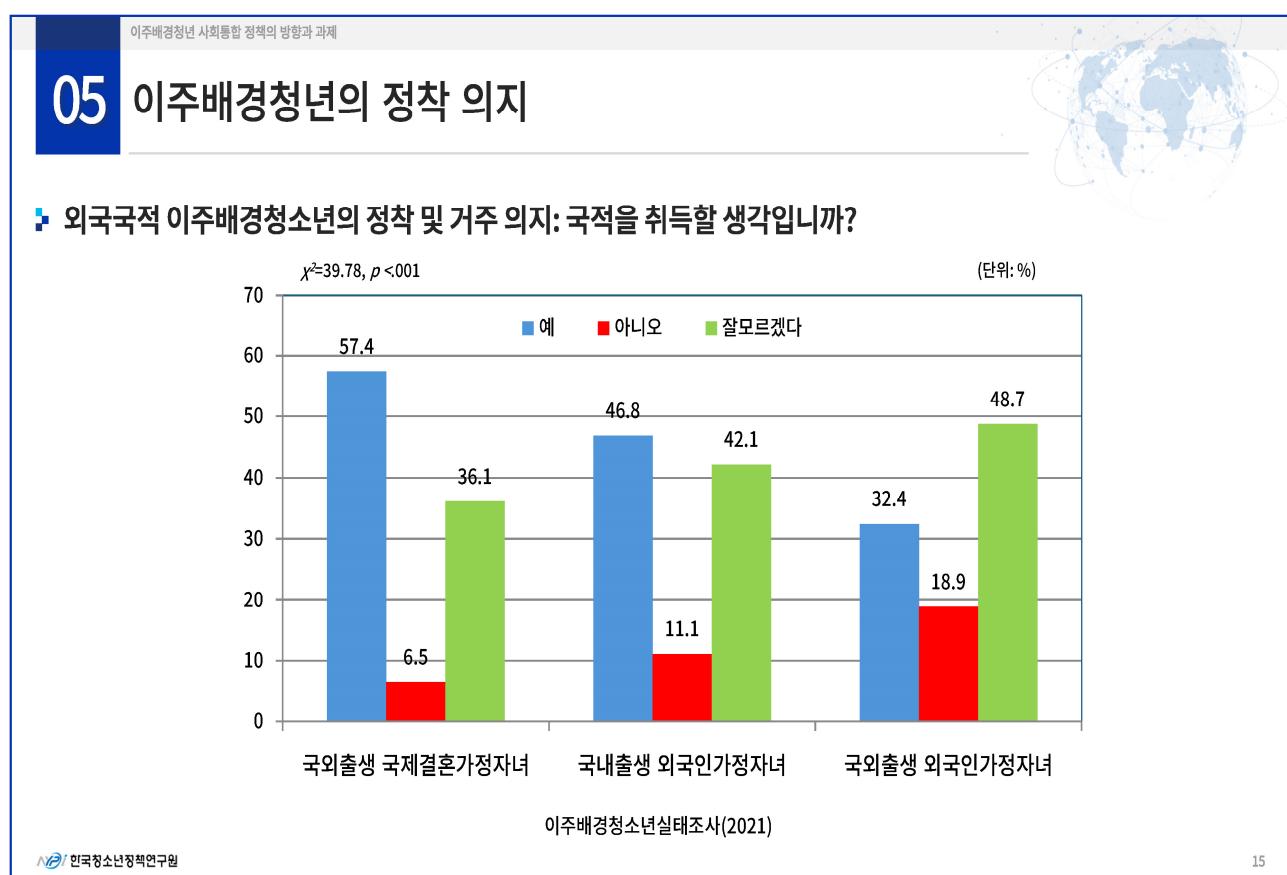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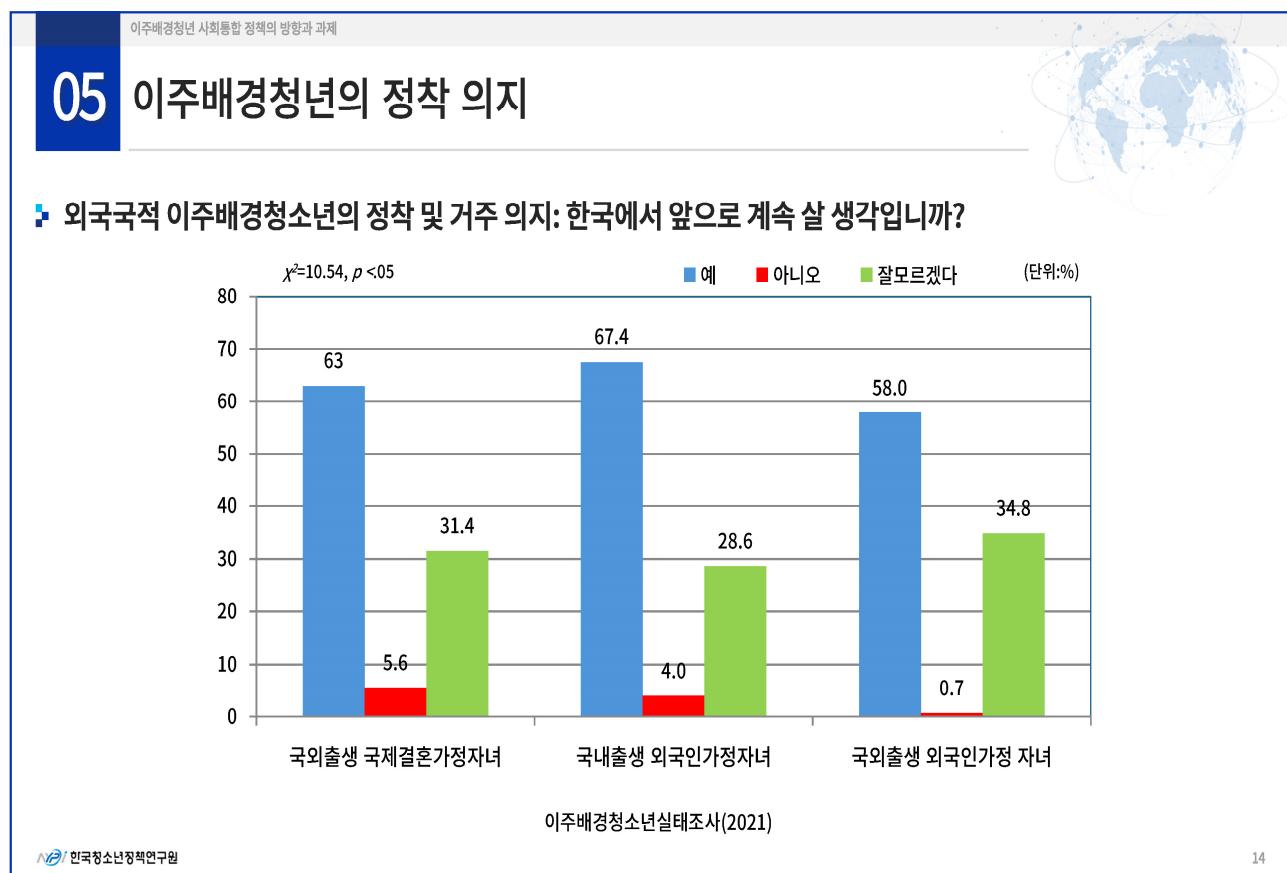
문항	어려움(%)
1. 비자와 체류자격을 얻거나 유지하는 것(외국국적자)	63.0
2. 체류자격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외국국적자)	79.5
3. 취업 등에 대해 상의할 사람을 찾는 것	69.5
4. 취업 및 일자리 정보를 찾는 것	63.8
5. 취업에 필요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이용하는 것	60.7
6. 나의 전공이나 경력, 흥미에 맞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	68.8
7. 일하면서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취업자)	30.6
8. 일하면서 문화적인 차(업무 스타일 또는 식사습관)에 적응하는 것(취업자)	26.5
9. 취업 인터뷰(면접)를 할 때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구직자/포기자)	45.3

## 04 이주배경청년의 생활실태 및 적응현황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3):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연구

-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장기정착이나 귀화에 대한 의지도 높아지며, 의사소통 수준이 되어도 대학이나 직장에서 필요한 실전 한국어 역량에 대한 요구도가 큼
- 이주배경을 장점으로 활용하고자 의지와 노력을 기울인 경우, 취업 및 한국사회 적응도 및 삶의 만족도가 높음
- 정보접근성의 격차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와 취업의 결정 및 질에도 영향을 미침
- 한국국적이 없는 경우 불안한 체류자격과 비자 및 체류자격 유지의 어려움으로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본인들이 원하는 진로와 취업 선택을 꿈꿀 수 없다고 생각하며, 고등학교, 대학교시기에 비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주도적 진로설계가 어렵고, 비자 연장을 위한 자격증 취득에 시간을 들이는 일이 다수 발생함.
- 이주배경청소년 또는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선호하는 경향성



## 06

## 이주배경청년에 대한 국민의 태도



## ▶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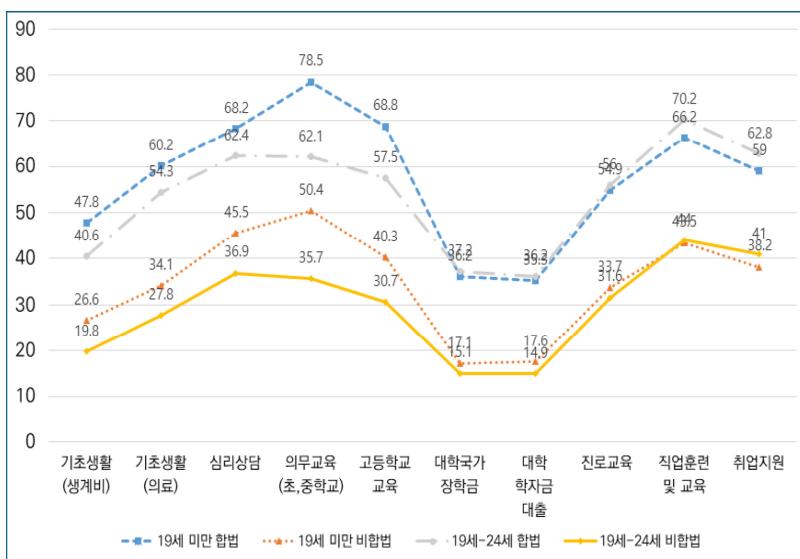
요인	문항	동의(%)
긍정적 영향	1.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75.0
	2.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향후 인력이 부족한 산업이나 업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될 수 있다	81.5
	3.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고령화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73.7
	4.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모국과 한국의 기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68.7
부정적 영향	5.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한국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 하여 내국인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9.7
	6.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정부의 공공지출 부담이 커질 것이다	74.2
	7.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증가하면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커질 것이다	65.5
	8.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주배경청소년들 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66.4
체류 자격	9.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19~24세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장기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	69.3
	10. 한국 국적이 없고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라도,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19~24세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는 한국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	57.5

## 06

## 이주배경청년에 대한 국민의 태도



##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대한 국민인식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과 과제

## 07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연구(2025)



▶ 국내 이주배경청소년 및 청년 전문가 50명 대상 요구도 조사 (10점 만점)

주제	순위	필요성	평균값(표준편차)
I. 기초적 삶의 기반	1	한국국적 비(非)소지자의 체류자격 안정화	8.32(1.04)
	2	수준별 한국어 능력 강화	7.90(1.17)
	4	지역사회 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기반 조성	7.68(1.12)
II. 자립역량강화	5	기술교육 및 지원	7.38(1.37)
	8	이주배경특화전문가 양성	6.80(1.51)
	11	고등교육(대학 이상교육) 지원	6.34(1.44)
	14	창업교육 및 지원	5.94(1.61)
III. 심리·사회적응 및 사회적 수용	3	사회적 배제와 차별 해소	7.72(1.28)
	6	사회적 고립문제	7.33(1.31)
	7	심리사회 적응 지원	7.18(1.35)
IV. 가족형성	9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6.60(1.47)
	10	자녀 돌봄	6.42(1.61)
	12	부모 교육	6.24(1.89)
	13	주거지원	6.02(1.72)
	15	결혼 및 출산	5.68(1.7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8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과 과제

## 07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연구(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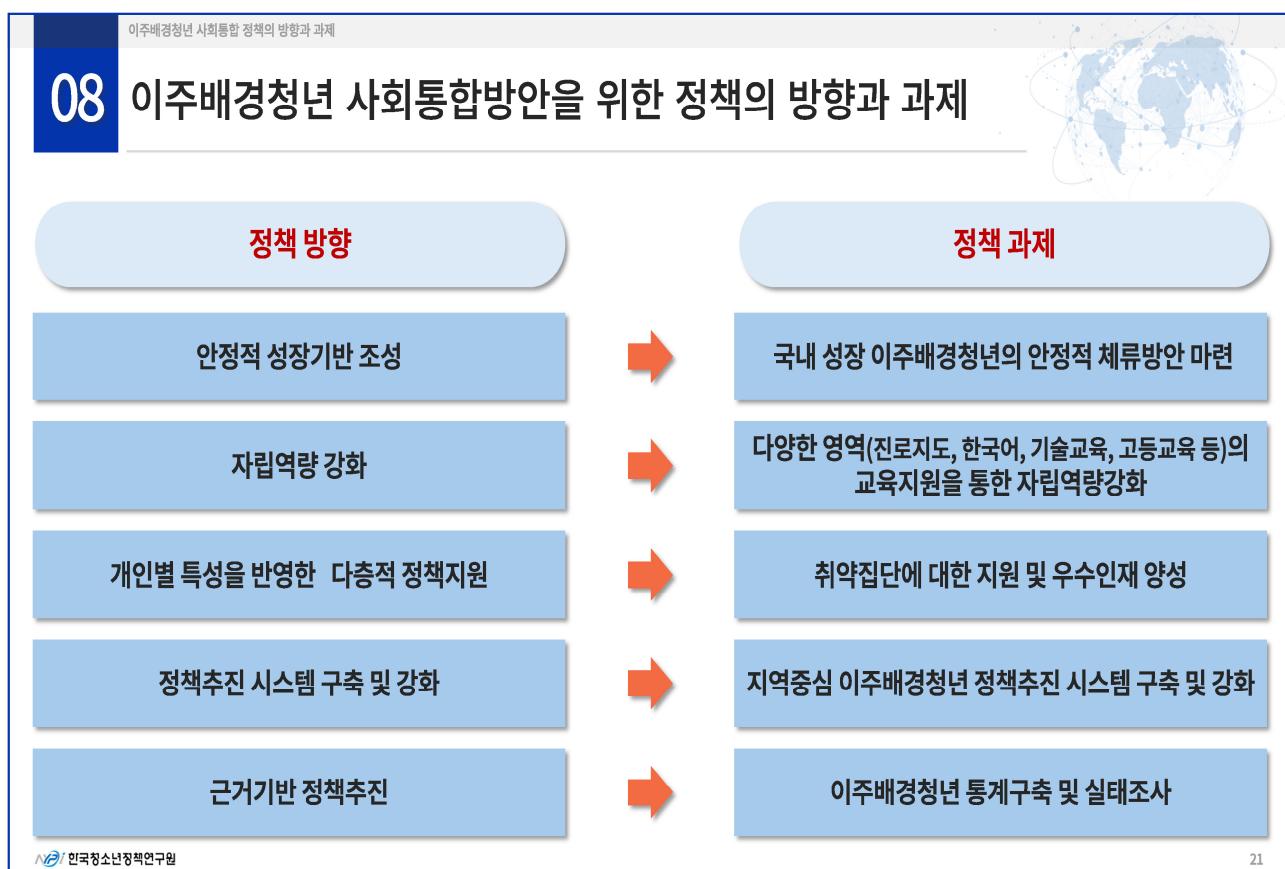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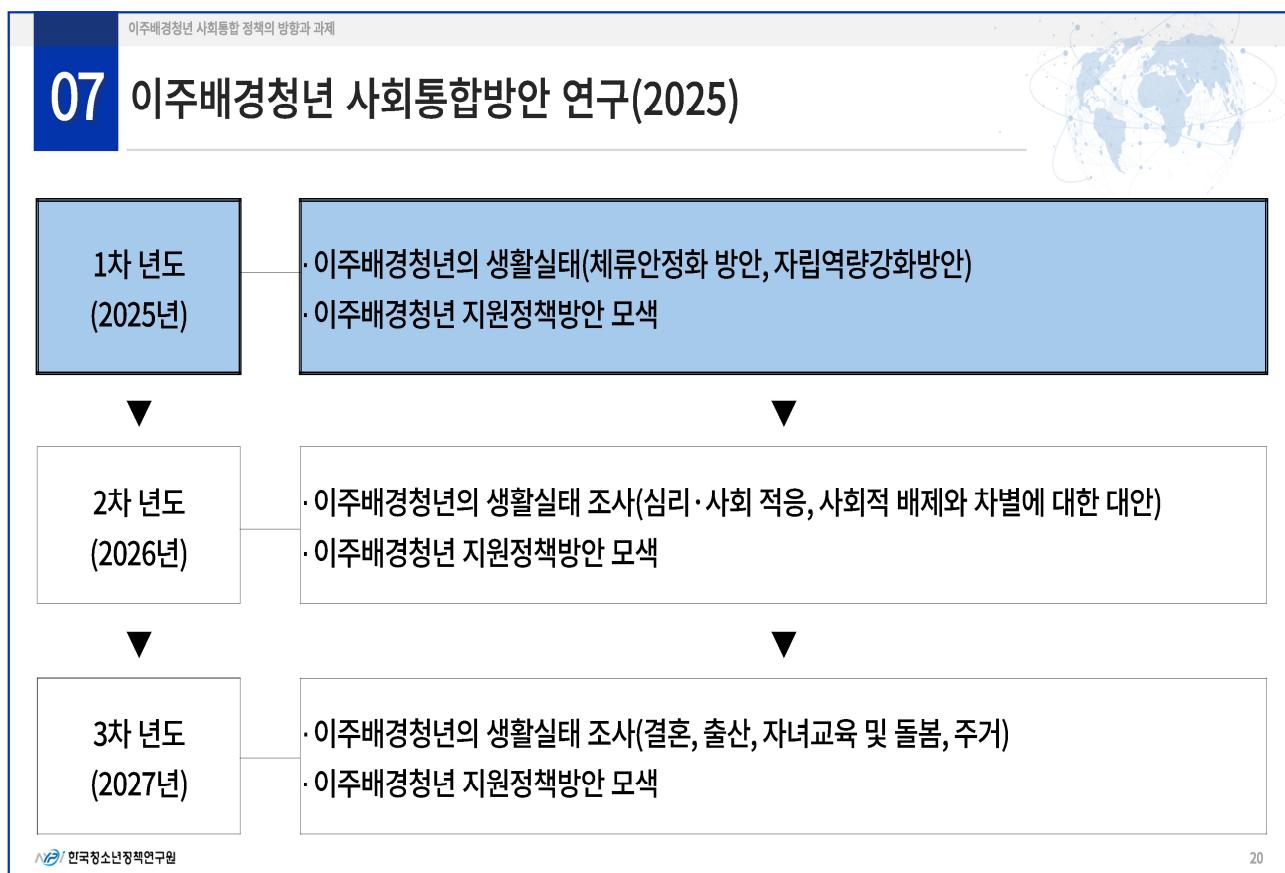


▶ 국내 이주배경청소년 및 청년 전문가 50명 대상 요구도 조사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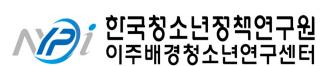
주제	순위	시급성	평균값(표준편차)
I. 기초적 삶의 기반	1	한국국적 비(非)소지자의 체류자격 안정화	8.20(1.36)
	2	수준별 한국어 능력 강화	7.70(1.43)
	4	지역사회 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기반 조성	7.40(1.54)
II. 자립역량강화	6	기술교육 및 지원	7.12(1.53)
	8	이주배경특화전문가 양성	6.48(1.60)
	9	고등교육(대학 이상교육) 지원	6.02(1.56)
	14	창업교육 및 지원	5.26(1.99)
III. 심리·사회적응 및 사회적 수용	3	사회적 배제와 차별 해소	7.70(1.18)
	5	사회적 고립문제	7.12(1.29)
	7	심리사회 적응 지원	6.98(1.52)
IV. 가족형성	10	자녀 돌봄	5.72(1.86)
	11	주거지원	5.64(1.91)
	12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5.52(1.88)
	13	부모 교육	5.44(1.95)
	15	결혼 및 출산	5.10(1.6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



감사합니다





• 주제발표 1 •

#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류 개선방안

•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주제발표 1

#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류개선방안

김 사 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

01

## 국내 성장 이주배경 청년은 누구인가?

- ▶ **입국시기**      국내 출생 또는 15세 미만에 입국 (OECD/EU의 이민자 통합지표 기준)
- ▶ **이주목적**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부/모와 함께 이주해 국내에서 성장  
(유학, 노동, 결혼 등의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이주한 경우 제외)
- ▶ **교육·연령**      국내에서 일정기간 이상 공교육 이수, 19~34세 사이
- ▶ **국적  
·체류자격**      대부분 외국 국적자, 일부 무국적자 존재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미등록)로 나뉨  
미성년기 체류자격에 따라 성인기 진입 시 경험 달라짐

## 02 이주민의 신분, 체류자격

### 체류자격

- 국내 체류 목적에 따라 부여
- 체류자격에 따라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가족 동반, 활동범위, 사회보장 접근성 등이 결정

8개 대분류

37개 중분류

290여 세부분류

A-1(외교), A-2(공무), A-3(협정)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1(문화예술), D-2(유학), D-3(기술연수), <b>D-4(일반연수)</b> , D-5(취재),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10(구직)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행사),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b>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b>
<b>G-1(기타)</b>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

## 03 이주배경 청년의 미성년기 체류자격

체류자격	세부분류
일반연수(D-4)	D-4-3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 초청 장학생, 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 / * 법무부 체류자격 부여 조치 D-4-8: 국내 출생 재학아동, D-4-9: 영유아기 입국 재학아동
방문동거(F-1)	F-1-8: 학벌체류자의 국내출생자녀, F-1-9: F-4의 미성년자녀(미취학), F-1-9R: F-4-R의 미성년자녀, F-1-11: H-2의 미성년자녀(미취학), F-1-12: F-2의 미성년자녀, F-1-14: 입양된 미성년 외국인, F-1-16: 난민인정자의 미성년자녀, F-1-52: 결혼이민자의 전후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 F-1-71: 국적신청자의 미성년자녀, F-1-72: 영주자격 신청자의 미성년자녀, F-1-99: 기타 동거, F-1-R; F-2-R의 미성년자녀
동반(F-3)	F-3-1R: F-2-R의 미성년자녀(이하 자녀), F-3-2: D-1의 자녀, F-3-2R: F-4-R의 자녀, F-3-3: D-2의 자녀, F-3-4: D-4의 자녀, F-3-5: D-5의 자녀, F-3-6: D-6의 자녀, F-3-7: D-7의 자녀, F-3-8: D-8의 자녀, F-3-9: D-9의 자녀, F-3-10: D-10의 자녀, F-3-11: E-1의 자녀, F-3-12: E-2의 자녀, F-3-13: E-3의 자녀, F-3-14: E-4의 자녀, F-3-15: E-5의 자녀, F-3-16: E-6의 자녀, F-3-17: E-7의 자녀, F-3-18: F-2의 자녀, F-3-19: F-4의 자녀, F-3-20: H-2의 자녀, F-3-74 E-7-4의 자녀,
거주(F-2)	F-2-2: 국민의 미성년 자녀, F-2-3: 영주자격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 <b>F-2-4: 난민인정자</b> , F-2-13: 공익사업 투자이민자의 미성년 자녀, F-2-16: 특별기여자, F-2-71: 점수우수인력의 미성년 자녀, F-2-81: 부동산 투자 이민자의 미성년 자녀
재외동포(F-4)	<b>F-4-11: 재외동포 본인, F-4-30: 재외동포 중 초중고교 재학자 등</b>
영주(F-5)	<b>F-5-3: 국민의 미성년 자녀, F-5-4: 영주자격 소지자의 미성년자녀, F-5-8: 국내 출생 재한학교, F-5-20: 영주자격자의 국내 출생자녀, F-5-22: 공익사업투자자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녀, F-5-S2: 예비 우수인재 영주의 미성년자녀</b>
기타(G-1)	<b>G-1-1: 산재치료 중인 자의 보호자, G-1-2: 질병, 사고 치료 중인 자의 보호자, G-1-5: 난민신청자, G-1-6: 인도적 체류허가자, G-1-12: 인도적체류허가자 가족결합, G-1-8: 국내 출생 고교졸업자, G-1-13: 영유아기 입국 고교졸업자, G-1-14: 영유아기 이후 입국 고교졸업자</b>

## 04 성인기 이행 시 체류자격 변경의 길

### 미등록 체류자

-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방안'에 따라 초·중·고교 재학 시 일반연수(D-4), 고교 졸업 후 기타(G-1) 체류자격 신청 가능
- 이후 등록 체류자와 마찬가지로 체류자격 변경
- 그러나 여전히 조건 미충족으로 체류자격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다수

### 등록 체류자

-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재외동포, 영주 체류자격 소지자는 기존의 체류자격 유지 가능
- 2025.3.31.까지는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해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  
이 거의 유일한 길 (단, 난민 신청자는 대학에 진학해도 체류자격 변경 불가)
- 2025.4.1. 이후부터 특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고교만 졸업해도 구직(D-10-1), 특정활동(E-7-Y),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 가능
- 그러나 협소한 신청 조건으로 인해 다수의 국내 성장 이주배경 청년은 배제될 가능성 큼

## 05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의 조건과 한계

- 국내 출생 또는 6세 미만 국내 입국자로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6세 이후 국내 입국자로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여권, 출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 부모가 범칙금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의 출국을 두려워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체류자격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들 존재

⇒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 진학 후 유학(D-2) 체류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미등록이 되는 사례도 존재

⇒ 한시적 조치로, 조치 종료(2028.3.31.) 전까지 체류기간 등 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체류자격 신청 불가

## 06 국내 성장 기반 청소년에 대한 취업·정주 방안의 조건과 한계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에서 초·중·고 졸업(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 이수)한 경우,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체류 허용 / 그 밖에 인도적 사유로 국내 체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방문동거(F-1) 허용
  - 인구감소(관심) 지역에서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으로 변경 가능
- ⇒ 24세 이상 청년, 18세 이전에 7년 미만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 과정 중 두 과정을 졸업 하지 못한 경우에는 D-10, E-7-Y, F-1 체류자격 신청 불가
- ⇒ 고교 졸업 후 진로 탐색, 창업, 프리랜서 활동 등은 사실상 불가능해 활동범위에 제약이 큼
- ⇒ 인구감소(관심) 지역에서 4년 이상 거주해야 F-2-R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F-2-R 자격으로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해야 영주(F-5)를 신청할 수 있어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 07 국내 성장 이주배경 청년의 정착 및 영주의 난관



### 유학 (D-2)

- 입학 및 체류자격 변경 시 재정능력 요구 (수도권 소재 2,000만원, 비수도권 1,600만원)
- 한국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배제
- 시간제 취업의 업종과 취업시간 제한으로 학비 및 생활비 마련에 한계, 그러나 휴학 불가
- 학점과 출석률이 미달되는 경우 체류자격 유지 불투명

### 특정활동 (E-7)

- 특정활동(E-7) 중 전문인력(E-7-1)은 주로 이공계 위주의 총 67개 업종에 한정, 준전문인력 (E-7-2) 중 요리사는 특정 국적자에게 사증 발급 제한
- 고용업체는 규모와 외국인 고용비율을 맞추면서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외국인의 임금 요건은 전년도 GNI의 70% 또는 80% 이상을 충족해야 함
- 신설된 E-7-Y는 취업 업종에 제한 없고 임금 요건도 없지만 신청 조건에 제한이 있음

## 08 국내 성장 이주배경 청년의 정착 및 영주의 난관



### ▶ 거주 (F-2-7)

- 거주 중 점수제 우수인력(F-2-7)은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해서 체류해야 신청 가능 (연소득 4,000만 원이 넘는 경우 3년 미만 체류자도 신청 가능)
- 나이, 학력, 기본소양(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연소득의 기본점수와 기타 가점·감점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서 총 170점이 넘어야 신청 가능

### ▶ 거주 (F-2-R)

- 거주 중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는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또는 인구감소(관심) 지역에서 D-10이나 E-7-Y로 4년 이상 체류, 연소득 전년도 GNI의 70%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기본적으로 인구감소 지역에 경제활동 인구를 늘릴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 5년 이상 체류해야 함 (거주지 제한 기간 내 타지역으로 이주 시 체류자격 취소)

## 09 국내 성장 이주배경 청년의 정착 및 영주의 난관



### ▶ 영주 (F-5)

- 영주(F-5)는 이주민의 체류자격 중 가장 안정적인 체류자격으로, 활동범위에 제한이 없고 체류기간 상한도 없음
- 일반적인 이주배경 청년이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변경한다면 일반 영주(F-5-1) 또는 점수제 영주(F-5-16)을 신청. 그러나 해당 체류자격의 소득 요건은 전년도 GNI의 2배로 꽤 높음 (2025년 기준, 전년도 GNI는 약 4,995만원으로 영주 체류자격 신청을 위해서는 연소득 9,990만원이 넘어야 함)

### ▶ 귀화

- 결혼이민자, 화교, 국민의 자녀 등 일부 이주민을 제외하고는 영주(F-5) 자격을 취득해야 이후 귀화가 가능함

## 10

#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장기 거주 자격 부여 및 귀화 관련 권고



42.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기 거주 자격 부여와 귀화에 적용되는 법률과 제도를 검토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할 것을 권고한다.

- (a) 당사국에 장기간 합법적으로 거주한 비시민들이 장기 거주 자격과 귀화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  
(b) 미등록 체류 중인 이주민에게서 태어난 아동과 청소년에게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로를 제공해 거주 자격 또는 귀화 자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 11

# 국내 성장 이주배경 청년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제언

## ▶ 1.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의 개선 및 제도화

### 1) 고교 미졸업자에게도 체류자격 신청 기회 부여

-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미성년 시기에 국내에 입국해 신청일 기준 7년 이상 체류한 이주배경 청년으로, 국내에서 초·중·고 교육과정 중 일부를 이수한 사람에게도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이후 타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허용

### 2) 부모에 대한 제재 조치 완화

- 부모에 대한 범칙금 추가 감면 적극 시행, 범칙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 기한 연장 허용
-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된 경우에도 청소년 연령인 동안(만 24세까지)은 국내 체류 허용

### 3) 체류자격 부여 방안의 상시화, 제도화

-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체류자격 부여 방안 법제화, 한시적 조치 아닌 상시적 제도로 운영

## 12 국내 성장 이주배경 청년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제언

### ▶ 2. 국내 성장 기반 청소년을 위한 취업·정주 방안의 개선

#### 1) 활동범위에 제한이 없는 거주(F-2-Y) 체류자격 신설·부여

- 고교 졸업 후 취업(E-7-Y), 취업을 위한 구직(D-10), 취업이 불가능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만을 허용하는 것은 이주배경 청년들의 활동범위를 지나치게 제한
- 학업 목적으로 이주하지 않은 국내 성장 이주배경 청년들에게 대학 진학 시 유학(D-2)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다른 유학생과 동일한 체류자격 유지·변경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
- 국내 성장 이주배경 청년들에게는 고교 졸업 또는 성인이 되었을 때 활동범위 제한이 없는 거주(F-2-Y) 체류자격(국내 성장 거주 비자)을 신설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 대상 범위의 확대

- 정주 기회 부여 대상을 18세~24세, 18세 이전 7년 이상 국내 거주, 국내 초·중·고교 모두 졸업 또는 초·중·고 과정 중 하나 미이수로 제한하는 것은 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화

## 13 국내 성장 이주배경 청년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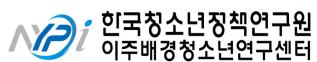
### ▶ 2. 국내 성장 기반 청소년을 위한 취업·정주 방안의 개선

- 체류자격 신청 요건을 청소년(24세 이하)이 아닌 청년(34세 이하) 연령, 18세 이전 7년이 아닌 신청일 당시 7년 이상 국내 거주, 국내 초·중·고교 졸업이 아닌 국내 초·중·고 과정을 일부라도 이수한 사람으로 확대한다면 더 많은 국내 성장 기반 청소년·청년들이 정착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3) 국내 성장 이주배경 청년을 위한 영주 체류자격 신설

- 국내 성장 거주 비자(F-2-Y)로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한 국내 성장 이주배경 청년을 위한 영주(F-5-Y) 체류자격(국내 성장 영주 비자) 신설
- F-5-Y는 일반적인 영주 자격 신청에 비해 소득요건 완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 (영주 자격 요건 등)의 제3항 제2호에 따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완화 또는 면제)

국내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이미 사회통합이 다 되어 있고  
정착의 의지가 높은 이주배경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해  
정착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당사자들은 물론,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게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 주제발표 2 •

## 이주배경청년의 전문기술교육 및 직업교육지원방안

• 변경환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교감



주제발표 2

## 이주배경청년 전문기술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방안

변경환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교감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

### I. 거점형 직업교육 고등학교 추가 설립 추진

## 01 개요 및 필요성



### ▣ 개요

- 이주배경 청년으로 성장할 이주배경 청소년의 직업교육 고등학교 설립
- 지역별 거점 형태로 운영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

### ▣ 필요성

- 보다 효과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청년 연령으로 진입하기 이전부터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학교교육 : 가장 효과적인 사회 정착 제도(종합교육 시스템)
- 기존 이주배경 청소년 직업교육 학교 :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고용노동부\)](#),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교육부\)](#)
- 지역별 거점 : 수도권(경기 안산) 및 경남권(부산)에 기숙형 직업교육 고등학교(**대안학교 형태**) 설립 추가 필요  
→ 이주배경청년의 교육적 니즈를 수용할 필요가 있음

## 02 주요 내용



### ▣ 대상

- 국내외 중학교 졸업자, 다문화가족 자녀, 재외동포 / 영주권 / 난민인정 자녀

### ▣ 핵심내용

- 권역별(수도권 / 중부권 / 경남권 / 호남권) 이주배경 청소년 직업교육 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
- 기숙형 학교 형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위탁 운영 등

## 02 주요 내용



### ▣ 최종적인 거점별 고등학교 운영 체제 예상(안)

거점(지역)		직업교육	운영(운영주체)	비고
수도권	서울	서비스 계열 (2개 학과)	비기술형 학교 (서울교육청)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운영 중
	경기 안산	기술 계열 (3개 학과)	기술형 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추가 개교 필요
중부권	충북 제천	기술 계열 (3개 학과) - 기계 / 설비 / 전기	기술형 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운영 중
경남권	부산	기술 계열 (3개 학과)	기술형 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추가 개교 필요
호남권	전남 강진	기술 계열 (3개 학과) - 설비 / 전기 / 건축	기술형 학교 (전남교육청)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 개교 예정(2026)-외국인 유학생 포함

## 03 세부 운영(안)



### ▣ 거점형 고등학교 추가 설립 세부 운영(안)

거점(지역)	학과	세부 규모	총원
경기 안산	기술계열 3개 학과 (세부학과 결정 별도 TFT운영)	3개 학과*15명씩*3개 학년	135명
부산		3개 학과*15명씩*3개 학년	135명

- 인력 총원 : 교원 30명\*2개교 = 60명 / 행정직 4명\*2개교=8명 / 운영직 16명\*2개교=32명
- 추진 체계 : 정책 추진 컨트롤타워 선정 → 부처별 역할 선정 → 예산 확보 → 학교설립 절차 진행 → 운영  
[기획재정부 / 고용노동부(한국폴리텍대학) / 교육부(교육청) / 지자체 협업 필요]

## 04 기대효과



- 미래의 이주배경 청년을 위한 사전 교육으로서 효과적임
-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 및 가족의 교육적 수요**에 대한 **정책적 응답**이 될 수 있음
- 한국어교육,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한국사회적응 교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짐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음
- 인구감소 시대에 부족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음
- 이주를 배경으로 하는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서 가치 있는 정책이 되어줄 것임

## II. 이주배경청년 전문기술교육 내실화방안



## 01 개요 및 필요성



### ▣ 개요

-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한국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 이주배경 청년 대상 직업기술 기반의 통합기술교육 모델 구축

### ▣ 필요성

- 현재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미래 인적자원 확보 필요
- 이주배경 청년의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을 국내 중요 인적 자원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음
- 이주배경 청년의 사회 경제적 자립을 통해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지원도 필요
- 현행 직업훈련 시스템과 전문대 교육은 외국 국적의 청년 대상 교육에 제한이 많은 상황이므로 실효성 있는 개선 필요

## 02 주요내용



### ▣ 대상

- 미성년 시기에 부모 동반으로 입국하여 성인 연령에 이른 이주배경 청년
- 다문화가정 자녀, 중도입국 자녀, 재외동포, 영주권, 난민인정 자녀 포함

### ▣ 핵심내용

- 수요자 맞춤형 직업교육 과정 운영
-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강화
- 유관기관 협력 및 홍보 강화
- 취업 연계 및 사후 관리
- 이주배경 청년 특성별 경력경로 지원

## 02 주요내용



### ▶ 수요자 맞춤형 직업교육 과정 운영

- 단기 진로 탐색 과정(1-3개월 모듈형)
- 중장기 취업 연계 과정(6개월-1년)

#### 예시1) 직업교육과정 구성(안)

단계	교육 유형	주요내용	교육기간
1단계	진입·적응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 집중교육(KLPT 기준)</li> <li>• 문화적응, 생활기술(IT, 금융, 노동법 등)</li> <li>• 직업탐색 워크숍</li> </ul>	2~3개월
2단계	직무기술 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별 기술훈련(전기, 기계, 바이오, 뷰티, 스마트제조 등)</li> <li>•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원- 수준별 한국어 분반</li> </ul>	3~6개월
3단계	현장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기업 인턴십</li> <li>• 캡스톤(종합적 실천 중심 과제) 기반 직무수행 프로젝트</li> <li>• 취업연계 컨설팅 및 비자전환 안내</li> </ul>	1~3개월

## 02 주요내용



#### 예시2) 전문기술교육 훈련 직종 제안

구분	확대 방향	세부 내용
① 서비스 직종	케어·뷰티·서비스 분야	간호조무사 기초, 미용(피부·네일), 제과제빵
② 신산업 기반 직종	스마트제조·AI·바이오	스마트팩토리 운영, AI활용 품질관리, 바이오공정 기초
③ 고수익 블루칼라 직종	기계·설비·건설 유망 기술	냉난방설비, 온돌배관, 특수용접, 전기공사
④ 창업 연계 직종	자영업 기반 직무	푸드트럭 실습, 커피바리스타, 영상편집 유튜브 크리에이터

## 02 주요내용



### ▶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강화

- 수준별 한국어 교육 분반 운영
- 이중언어 능통 전문 인력 배치
- 온/오프라인 한국어 교육 시스템 구축(평생학습시설 활용 등)

### ▶ 유관기관 협력 및 홍보 강화

- 지자체 중심의 유관기관 업무 협약
- 지역사회 밀착 홍보
- 취업 박람회 및 설명회 개최

### ▶ 취업 연계 및 사후 관리

- 취업 후 관리 및 모니터링
- 일학습 병행 훈련 도입(E-7 비자로의 전환 지원 등)



(ChatGPT-AI 생성 이미지)

## 02 주요내용



### ▶ 이주배경 청년 특성별 경력경로 지원

대상	과정지원	내용
진로 미결정자	단기 '니즈 맞춤형' 모듈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 기반 탄력적 교육훈련 과정 설계</li> <li>- 모듈형 2~3개월 체험 중심 프로그램</li> <li>- 진로 탐색 후 장기과정 진입 유도</li> </ul>
진로 결정자 기술기반 취업희망	자격기반 종장기 전문기술 양성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9개월 직무 교육 + 한국어·문화교육 통합</li> <li>- 분야별 자격 취득 연계</li> <li>- 연계기관: 폴리텍대학, 전문대학, 공공직업훈련기관</li> </ul>
진로결정자 학위자격기반 취업희망	학위 연계형 경로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기술교육 후 전문대·폴리텍 진학 유도</li> <li>- 전문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전문기술자로 안착할 수 있는 경력경로 제공</li> </ul>

주제발표 2

## 02 주요내용



추진 체계	참여주체	역할	구체적 내용
	중앙정부(법무부 외)	비자 등 제도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자제도 검토</li> <li>• 체류자격 관련 행정지원</li> </ul>
	지자체	정책지원 및 입학지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지원(버스광고, 축제부스 등) 유휴공간 제공, 기숙사 유치</li> <li>• 교육 수당 보조(예산지원)</li> </ul>
	유관기관	모집 및 적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센터·고등학교·다문화 커뮤니티</li> <li>• 홍보, 입학설명회, 통역지원</li> <li>• 상담 및 중도탈락 예방 지원</li> </ul>
	대학 (폴리텍·전문대)	운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개발 및 자격 연계</li> <li>• 한국어 수준별 분반 운영</li> <li>• 기술교육 운영, 자격연계, 학점인정</li> <li>• 진로연계 시스템 구축</li> </ul>
	중소기업	수요제공 및 현장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기반 직종 제안</li> <li>• 현장실습 및 인턴 운영</li> <li>• 고용 연계 MOU 체결</li> </ul>
	지역 상공회의소 / 고용센터	취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 채용박람회 운영</li> </ul>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2

주제발표 2

## 02 주요 내용



### ▶ 제도 개선 및 인프라 지원사항

#### ① 제도

- 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건의  
(영주권자녀, 재외동포자녀, 난민인정자녀 등 한국 사회 정착 가능성 높은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년에게 확대)
- 비자 제도 개선 연계  
예) 안정적 취업비자/E-7-1 고용추천직종 확대, 지역특화형비자/F-2-R 연계  
국내 일정교육 이수 및 성실하게 생활할 경우 체류자격 특례 부여, 외국인청소년/E-7-Y 조건 완화 등

#### ② 예산

- 유학생 훈련수당 신설
- 한국어 집중 교육비용 별도 확보
- 지자체 RISE 및 협력예산 활용(지역고용 다문화 예산 항목 등)
-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예산 확보
- 중소기업 인턴 연계 시 일부 기업 부담 유도 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

## 02 주요내용



### 이주배경청년 전문기술교육 내실화 방안 로드맵(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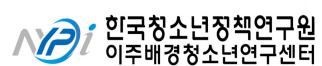
단계	주요 목표	핵심 추진 과제	실행 주체
1단계 시범 기획	▪ 정책 모델 설계 ▪ <b>시범지역</b> 선정	① <b>시범지역(3~5곳)</b> 선정 ② 이주배경 청년 실태조사(수요조사) ③ 충분 식중 및 과정 설계 ④ 법·제도 현황 분석	▪ 고용노동부 ▪ 교육부 ▪ 폴리텍대학 ▪ 지역 자치체
2단계 시범 운영	▪ 통합 훈련 시범운영 ▪ 과정별 개선점 도출	① <b>이주배경청년 통합 기술교육 운영(한국어·기술·현장실습)</b> ② 취업연계형 모델 실험 ③ 기업 인턴십 협약체결 ④ 커뮤니티 기반 지원 구축	▪ 폴리텍대학(거점 캠퍼스) ▪ 전문대학 ▪ 중소기업 ▪ 이주민단체
3단계 제도 기반 구축	▪ 법·제도 정비 ▪ 예산항목 신설	① 직업훈련 참여 자격 확대(비자개선 등) ② 비자 전환 요건 완화(E-7, F-2-R 등) ③ 훈련수당 및 인센티브 예산 반영 ④ 직업계고·전문대와 학점연계 체계 구축	▪ 국회 ▪ 법무부 ▪ 교육부 ▪ 고용노동부
4단계 권역별 확산	▪ <b>권역별 전담 교육기관</b> 지정 ▪ 지역 연계 인프라 강화	① <b>권역별 참여대학 확대</b> ② 지역 중소기업 매칭 강화 ③ 지역·학교·기업 간 MOU 체결 ④ 교육과정의 직종 다변화(IT, 바이오, 뷰티 등)	▪ 권역별 전문대학(폴리텍) ▪ 지자체 ▪ 상공회의소, ISC, SC, 기업
5단계 전국 정착	▪ 전국 표준 모델 정착 ▪ 지속가능한 통합 운영체계 구축	① 통합 플랫폼 운영(신청·교육·고용 연계) ② 졸업생 추적 관리 및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 ③ 지역 인구소멸 대응과 연계한 지속가능성 강화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지역 고용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2 기대효과



- 이주배경청년의 성공적 자립 및 사회통합 증진
  - 산업현장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 제공 : 직업역량 강화, 안정적 취업 경로 확보, 경제적 자립 도모, 고용률 향상
- 지역 및 국가 인적 자원 역량 강화
  -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청년 기술인력 안정적 확보
  - 지자체/기업/대학 간의 실질적인 협력 모델 정착
  - 한국사회 정착을 통한 이중언어 활용 등 우수 인재 확보
- 미래 사회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 사회통합 및 인구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교육시스템 구축
  - 국가 성장 동력 확보 및 미래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기반 구축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



• 주제발표 3 •

# 이주배경청년의 고등교육지원방안

• 김택형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 주제발표 3

# 이주배경청년의 고등교육지원방안

김택형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고등교육 지원방안

## 01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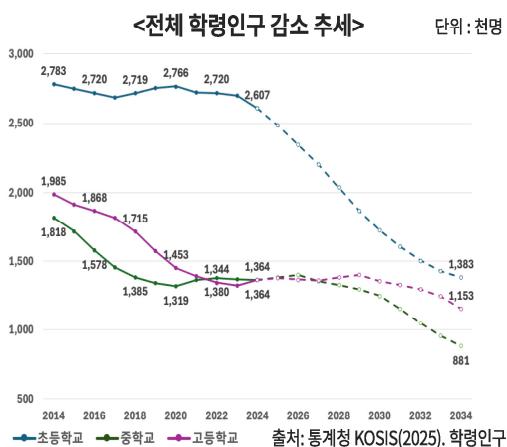


### ▣ 학령 인구 감소

- 낮은 출산율 -> 입학자원의 감소 -> 학령 인구 감소 -> **대학 입학 자원 감소** (+학교/교사/대학/지역사회 등 부정적 영향력)

### ▣ 이주배경학생의 꾸준한 증가

- 지난 10년 간 전체 이주배경학생은 약 2.3배 증가(초: 약 2배, 중: 3.5배, 고: 3.4배) (참고: 2024년 기준, 이주배경학생은 전체 대비 3.6%)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고등교육 지원방안

## 01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의 필요성

**▶ 이주배경주민의 거주기간 증가**

- 이주배경주민(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귀화자 및 그 후손)의 한국 내 거주 기간 증가 → 한국 내 장기 정착 가능성 ↑

**▶ 이주배경청년의 대학 진학율 증가**

- 이주배경청년의 대학 진학율은 40.5%(21년)에서 61.9%(24년)으로 약 21.9pp 증가 →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 증가
- '국민일반'과의 차이는 약 31.0%(21년)에서 13.0%(24년)으로 약 28.0pp 감소 → '국민일반'과의 차이는 여전함
- 지금까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정책은 '초중등'에 집중되어 있어 있음(관계부처 합동, 2023.9)

<결혼이민자 · 귀화자 거주기간>

거주기간	'21 (%)	'24 (%)
5년 미만	12.1	7.4
5~10년 미만	19.2	16.6
10~15년 미만	28.9	23.4
15~20년 미만	22.2	24.3
20년 이상	17.7	28.3

<고등교육기관 순취학율 격차>

집단	'21 (%)	'24 (%)	증가율 (%)
국민일반	71.5	74.9	3.4
다문화가구자녀	40.5	61.9	51.4

출처: 여성가족부(2025).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024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2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고등교육 지원방안

## 02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의 배경

**▶ 우리 사회 내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과 혐오**

- 한국 사회에는 성소수자, 난민,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존재

**▶ '대학'을 관통하는 차별과 혐오**

- 대학 내 차별과 혐오: 온·오프라인('에브리타임'), 성별, 출신지역, 출신국가, 입학전형('00총'), 성소수자 등
- 대학을 통한 차별과 혐오: 학력(학벌)차별, 지방대 차별('지잔대', 본교·분교), 취업 및 직장·사회 내 차별 등

<집단별 인권 존중 정도>

집단	존중받고 있거나 존중받는다(결혼+전체)	보통이다	존중받지 못한다(결혼+전체)
아동청소년	67.1%	26.9%	6.0%
노인	61.5%	28.2%	10.3%
여성	60.9%	30.0%	9.0%
장애인	49.1%	32.1%	18.9%
결혼이주민	46.7%	37.5%	15.8%
이주노동자	40.6%	38.8%	20.6%
비정규직 노동자	34.1%	38.2%	27.8%
난민	31.5%	39.5%	29.0%
성소수자	28.2%	38.8%	33.1%

출처: 경기도 인권센터(2025). 경기도 인권 관련 도민인식조사

<차별과 혐오의 공간이 된 대학>

"XX총" 차별·혐오 표현 온상이 된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출처: 경남도민일보(2023.6.12)

혐오가 일상이 된 대학사회를 진단한다

출처: 원대신문(2015.11.0)

"그것도 학교나?" 이국종 교수도 당한 지방대 혐오

출처: 오마이뉴스(2019.5.7)

"지방대 꼬리표 싫어 또 수능"…뿌리 깊은 학교 차별

출처: KBS 뉴스(2019.4.9)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3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고등교육 지원방안

## 02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의 배경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생애주기적 접근**

- Study Korea 300K Project(교육부, 2023)
- RISE 체제 하에서 지역별로 지역맞춤 외국인 유치·양성을 위한 단계별 정책 수립(예: 유치 전 단계 - 유치 단계 - 양성 단계 - 활용 단계)

**대학의 다양성(DEI: Diversity, Equity, Inclusive)을 위한 노력**

- 다양성위원회(예: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경북대 등), 포용성위원회(예: 카이스트 등)
- 인권센터(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성평등센터(예: 연세대학교 등)

**<RISE 체제 하 지역별 유학생 유치양성 방안>**



**<대학별 다양성위원회(예)>**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Korea University Diversity Council

KAIST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SNU Diversity Council

04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고등교육 지원방안

## 03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연계 & 확대)



**‘이주배경청년’ 정책 → 이주배경 & 유학생 종합적 ‘인구’ 정책**

- 이주배경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화 정책을 ‘이주배경 & 유학생’ 등 종합적인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접근
- ‘개별 정책’에서 ‘종합 대책’으로

**‘이주배경청년’ 특화 정책 → 다양성 & 포용성 강화 정책**

- 초기 사업은 ‘이주배경청년’을 대상으로 한 개별 정책사업으로 시작하되, 점차 대학 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 대학 캠퍼스의 기존 정책 및 센터와 연계 & 협력

**‘이주배경청년’ 대상 고등교육 정책 →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초-중-고-대 연계 정책**

-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초·중등 교육정책과 이주배경청년을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 정책을 연계
- 유기적 연계를 통한 중도이탈 방지

05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고등교육 지원방안

## 04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의 제안 1



**▶ 이주배경청년 대상 고등교육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가칭 '무지개Dream-Hi' 지원 사업)**

- 이주배경청년을 대상으로 한 입학 전 - 입학 - 재학 - 졸업 및 취업 시기에 맞는 단계별 맞춤형 정책 수립
- 이주배경청년 수요 및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정책
- 이주배경청년 전문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시범사업 실시 후 정책 효과 분석 후 적용 대학 확대

시기	내용	비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대학 및 폴리텍대학</li> <li>• 지역별 1~2개 대학</li> </ul>	지역 및 산업수요 고려
입학 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홍보 및 관련 학교, 단체와의 협약</li> <li>• 체류 자격 관련 정보 및 진로 교육 제공</li> </ul>	다문화 밀집학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무지개청소년센터 등
입학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년 대상 대학입학 전형</li> <li>• 계약학과(예: 실용예술, 문화콘텐츠 등) 또는 기업·산업연계형 특화 트랙</li> </ul>	현재 '사회배려자전형', '고른기회전형', '다문화 자녀 전형' 등 학생 및 지역산업 수요 반영
재학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화된 교육과정 구성 (한국어교육, 직업기술교육, 창업역량 교육 등)</li> <li>• 이주배경청년 전문 지원센터(→ 다양성 지원 센터/위원회로 발전)</li> <li>• 포용적 캠퍼스 조성 (외국인 유학생, 이주배경청년 친화적)</li> </ul>	학내 거버넌스 구축
졸업 및 취업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li> <li>• 기업연계 인턴십 프로그램</li> </ul>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6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고등교육 지원방안

## 04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의 제안 2



**▶ 포용적 캠퍼스 조성 사업(Inclusive Campus Initiative)**

- 이주배경청년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 및 다양성 친화적 캠퍼스 조성 사업
- 기존 학내 기관/기구(예: 교수학습센터, 국제처, 입학처 등)과의 연계 강화
- 제도 개선을 통한 대학의 체질 개선

시기	내용	비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대학</li> </ul>	대학 역량 개선
입학 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용 기반(다문화, 인권 등)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li> <li>• 학생 Peer/Buddy 매칭 프로그램</li> <li>• Welcome kit 제공(캠퍼스 안내, 한국 vs 외국 문화)</li> </ul>	학생-학생 간
교수자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직원 대상 '문화적 민감성(cultural sensitivity)' 프로그램/연수 운영</li> <li>• 교수학습센터와 연계</li> </ul>	학생-교수 간
전문 지원센터 운영 - 학업 역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튜터링 시스템(전공 과목별 학습 멘토링)</li> <li>• 기초과목 학습 지원 및 Writing Center (AI 기반)</li> </ul>	
전문 지원센터 운영 - 생활 적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년 및 외국인 유학생 맞춤형 학생생활상담실 운영 및 전문요원 배치</li> <li>• 거주지원, 체류 및 취업비자 등 법률지원, 문화 축제 등</li> </ul>	학생-전문가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성 수용성 지표 개발</li> </ul>	대학정보공시 연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7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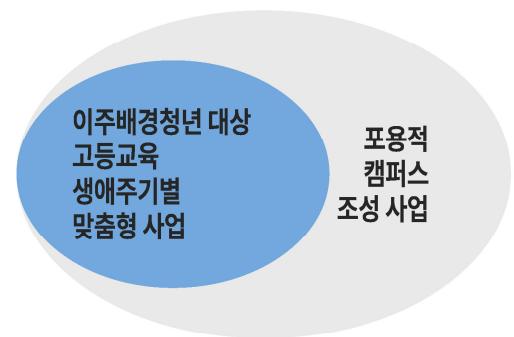
## 기대효과 및 발전방향



## ▣ 기대효과

- 개인적 효과 : 이주배경청년의 학업 및 취업 역량 강화, 사회 정착 촉진
- 대학 효과 : 국제화, 다문화 수용성 역량 제고
- 사회적 효과 : 지역산업 활성화, 인구정책 보완

## &lt;이주배경 청년 대상 고등교육 정책 간 관계&gt;



## ▣ 발전방향

- 인구 및 교육 종합 정책의 일환으로 발전
- 종합적 거버넌스 구축 : 교육부, 대학, 지자체 협력 모델
- 고등교육의 포용성, 국제화 역량 강화 기반 마련
- 제도적 기반 마련 : 입학전형, 재정 지원, 기관평가 연계
- 기타 고려 사항 : 체류 자격, 취업 비자 관련 법 · 제도 정비





• 주제발표 4 •

## 지역중심 이주배경청년정책 추진방안

• 강은이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장



주제발표4

# 지역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추진방안

강은이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센터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

01

## 아동청소년을 넘어 이제는 청년

### ▶ 예비 청년 규모

예비 청년들만 24년 기준 15만여명 (24년 19세 이하)

2022년 행안부 외국인주민 현황. 18까지 자녀만 30만명

\* 외국인 주민의 자녀동반은 대부분 장기 정주 형태

### ▶ 청년 연령으로 정주가능성 확장

현재 국내성장기반 청년연령(19~34) 규모는 파악불가

비자 정책 확대 (D-10, E-7-Y, E-7-R, F-2-R)로 장기거주 증가

24년 기준 19세~34세 등록외국인,동포 75만 5천여명 (결혼이주제외)

발표자료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 01 아동청소년을 넘어 이제는 청년



### ▶ 국내 성장 기반 이주배경 청년

- 한국의 사회, 문화, 교육 속에서 성장해

한국사회에 정주하고 있는 **우리사회가 키운 청년**

- 안정적 정착과 역량개발은

**우리사회 미래의 확실하고 안정적인 투자**

“ ”

본 정책연구에서 말하는

‘이주배경 청년’

국내에서 출생 또는 성장기를 거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 이주아동청소년 성장 대비 느린 정책 속도

- 이주배경 아동에서 청소년까지 15년 넘게 현장의 정책 요구

- 정책이 머뭇거리는 동안 우리사회 청년일원으로 성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2

발표자료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 01 아동청소년을 넘어 이제는 청년



### ▶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부재

한국의 초.중.고 교육을 받아 성장한 이후 **청년으로의 연결고리 필요**

청소년기와는 다른 **성인이행기의 청년 욕구와 필요 정책 대응**

국가 인구전략으로 한국 생활문화에 적응한 청년 정주 지원전략 필요

### ▶ 청년 기본법의 ‘청년’

다른 조건이 없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사람’**

이주배경을 가지고 장기체류 중인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포함가능

**‘존엄한 가치 실현과 행복한 삶 영위’라는 법의 목적은 이주배경 청년에게도 동일한 권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3

발표자료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 02 기존의 지원시스템 현황 - 법 & 조례



###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 청소년 : 9세에서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차별금지** :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
  -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내용은 정의만 내리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음
  - ☞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했지만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정. 지자체 설치동력 약화.
  - ☞ 청소년정책위원회 등에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영역 부재
  - ☞ 별도 법 부재와, 기존 법 미비로 **지역 전달체계(센터)들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제외**, 제도 사각지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4

발표자료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 02 기존의 지원시스템 현황 - 법 & 조례



### ▶ 청년지원법

- 청년 - 19세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청년의 권리** - 인종.종교.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 취약계층청년 -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 ☞ 정의는 '사람'이지만 이주배경 청년에 대한 언급, 정의 없음
  - ☞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 인종 뿐 아니라 국적, 체류자격도 포함 필요
  - ☞ 이주배경 청년들은 고용. 교육. 복지 전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질적 취약계층**
  - ☞ 지역별 청년지원센터가 중앙청소년센터에 '등록' 가능. 지역별 센터는 **지자체 예산**이지만 공식적인 등록 과정을 통해 '중央청년지원센터'가 사업 및 인력관리 지원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5

발표자료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 02 기존의 지원시스템 현황 - 법 & 조례



### ▶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 안산시, 수원시, 화성시 - '센터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정하여 전담 전달체계 지원
- 경기도 광역차원에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조례' 제정 (2024.12.)
  - 거점센터 및 조례기반 사업은 미진행
- 부천시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조례' 제정 (2025.6.)
  - 전달체계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 부재. 아동을 포함한 조례

발표자료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 03 기존의 지원시스템 현황 - 전달체계



### ▶ 글로벌청소년센터(조례기반 기관)

- 경기도 내 2010년 안산시를 시작으로 수원시, 화성시 3곳 운영  
서울시 내 1곳 운영  
지자체 조례로 설치운영. 광역단체 및 정부지원은 공모사업 형태로 지원
- ☞ 기관 운영비는 지자체 예산으로만 국한.
  - ☞ **인근지역 청소년 서비스 제공 불가**
  - ☞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
  - ☞ **이주배경 청년 지원으로의 확장 및 연속성 단절.**

발표자료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 03 기존의 지원시스템 현황 - 전달체계



###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여성가족부)

공모사업 형태로 일부 지역 내 단체들이 프로그램 지원받아 운영(레인보우스쿨 등)  
연구 및 사업 인큐베이팅, 실무자 역량강화 등 운영

- ☞ 중앙의 유일한 전달체계이지만 지역 내 전달체계와의 연대성, 컨트롤타워 기능 부족
  - ☞ 국무총리 또는 장관의 '지정'을 통한 지역센터 운영지원 기능 부족
  - ☞ 각 지역센터 및 단체들이 취득한 정보, 축적한 전문성이 조직되지 않고 유실될 소지 높음
- (※ 국무조정실 '청년재단' 설립, '중앙청년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통해 지역센터 역량강화 지원)

발표자료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 03 기존의 지원시스템 현황 - 전달체계



### ▶ (기초자치단체 내) 청년 플랫폼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청년지원센터, 플랫폼들을 개성 있게 운영
- 국무조정실은 '청년친화도시'를 선정하며 각 지역 특성에 맞춘 청년 정책 개발을 독려
- 한 지역에 다수의 청년플랫폼이 전용 공간과 함께 존재
- 각 플랫폼마다 특성을 달리하여 운영

- ☞ 이주배경 청년 특히, 외국국적 청년 이용은 실질적 불가
- ☞ 실무자들의 이해와 역량, 경험 부족. 비이주 청년들과의 욕구 상충 - 주변화 가능성 존재
- ☞ 이주배경 청년(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별 최소 1개의 센터, 플랫폼 필요
- ☞ 이주배경 청년(청소년)인구가 적은 경우, 광역단위 센터 설치라도 우선 지원 필요

발표자료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 04 이주배경 청년 지역중심 전달체계 구축 방식



### ▶ '별도' 전문화된 전달체계(원스톱 플랫폼) 구축 필요

- 일반 청년들과 욕구 상이 (언어, 비자, 취업가능영역, 문화적응, 제도 등)
- 일반 청년 등 주류를 위한 사업기획에 주변화 될 가능
- 기관의 주요활동 방향 차이 (체류 및 정책개선 옹호 등)
- 일부 활동들을 청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가능

“글로벌”  
미래세대  
지원센터(안)

### ▶ 필요시 이주배경 청년과 청소년 연계 기능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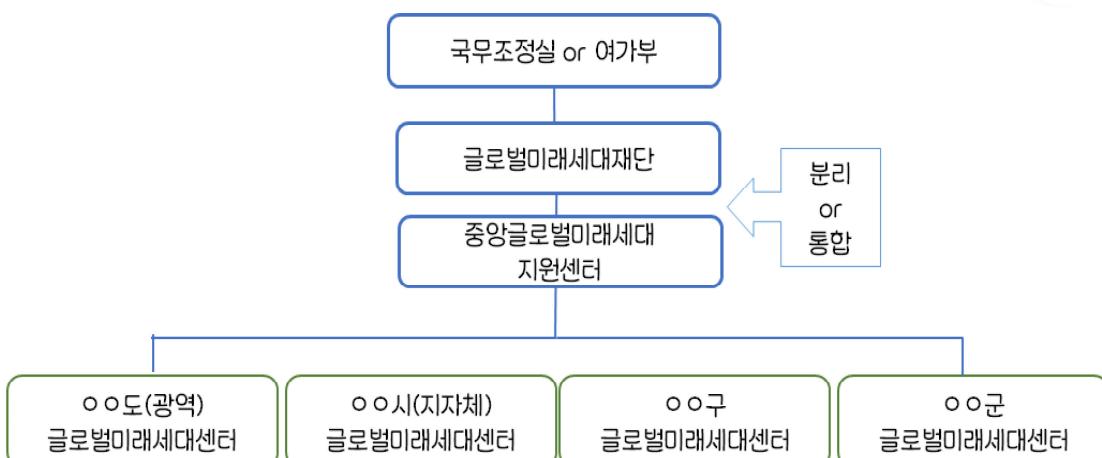
- 청소년 지원에서 청년까지 통합하는 파이프 라인 역할 가능
- 일반 청년들과 달리 이주배경 청소년과 욕구영역 중복, 공유가능성 높은 서비스와 인프라
- 하나의 전달체계로 청년과 청소년을 모두 커버하며 효율적, 시너지 효과 (멘토멘티, 데이터 누적)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

발표자료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 04 이주배경 청년 지역중심 전달체계 - 조직모형



인구 대비 외국인 인구 3~5%이상 지자체 설치. 운영

그 이하 분포 선택적으로 광역 또는 지자체 설치. 운영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1

발표자료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 04 이주배경 청년 지역중심 전달체계 - 역할유형

**청소년 중심 유형**  
지역 인구특성에 따라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년까지 확장

**청년 중심 유형**  
지역 인구 및 특성에 따라  
청년을 중심으로  
청소년까지 확장

Illustration of a person pointing upwards, with a network of circles above their head.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2

발표자료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 04 이주배경 청년 지역중심 전달체계 - 사업모형

(지역)글로벌미래세대지원센터

- 취업(자립) 사업
- 교육 사업
- 복지 사업
- 문화교류 사업

취업(자립) 사업

- 체류자격상담
- 취업 정보제공
- 취업연계컨설팅
- 자격증 취득지원
- 노무상담 사후관리
- 고용노동실태 조사

교육 사업

- 고급 한국어
- 자격증과정 한국어
- 취업분야 한국어
- 전공 한국어
- RISE등 대학연계
- 한국 법.제도교육

복지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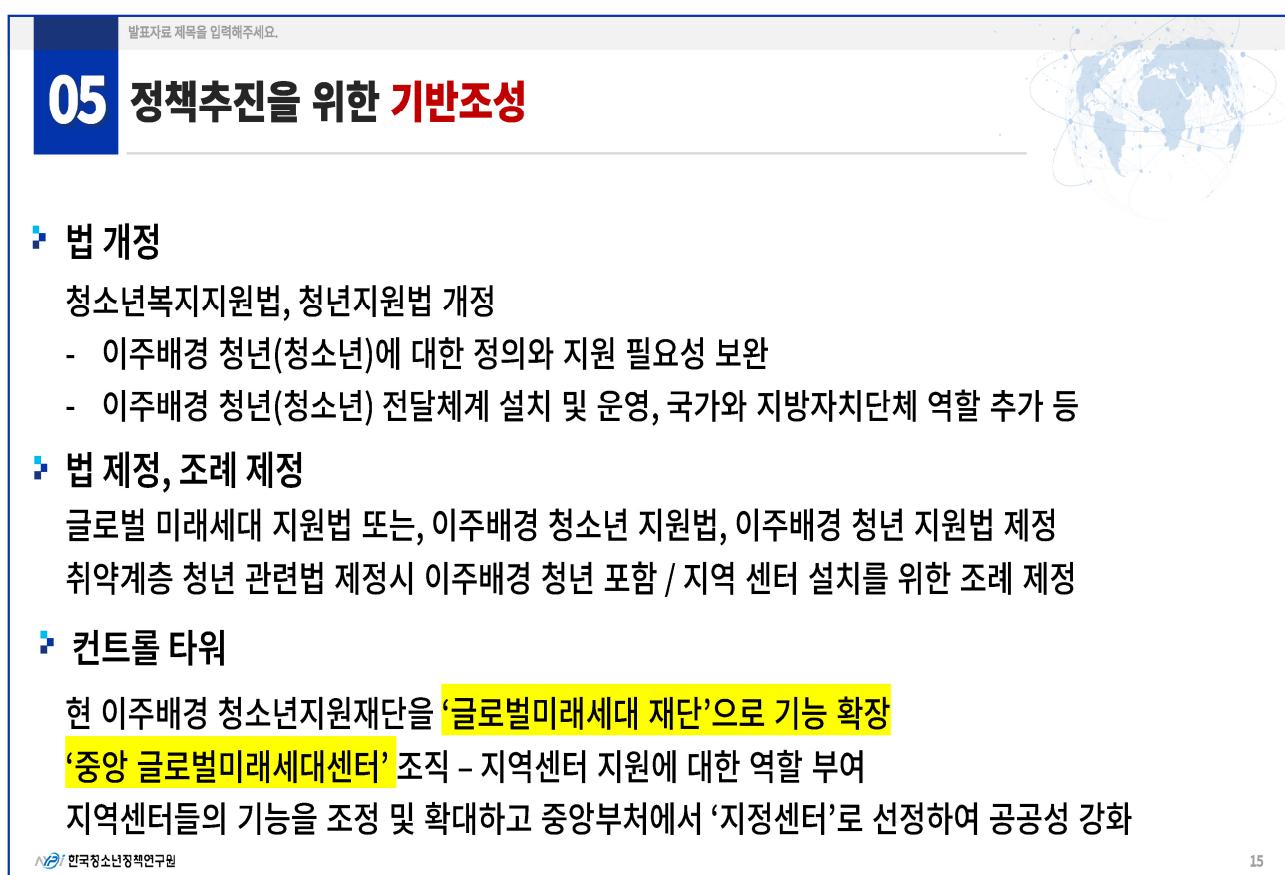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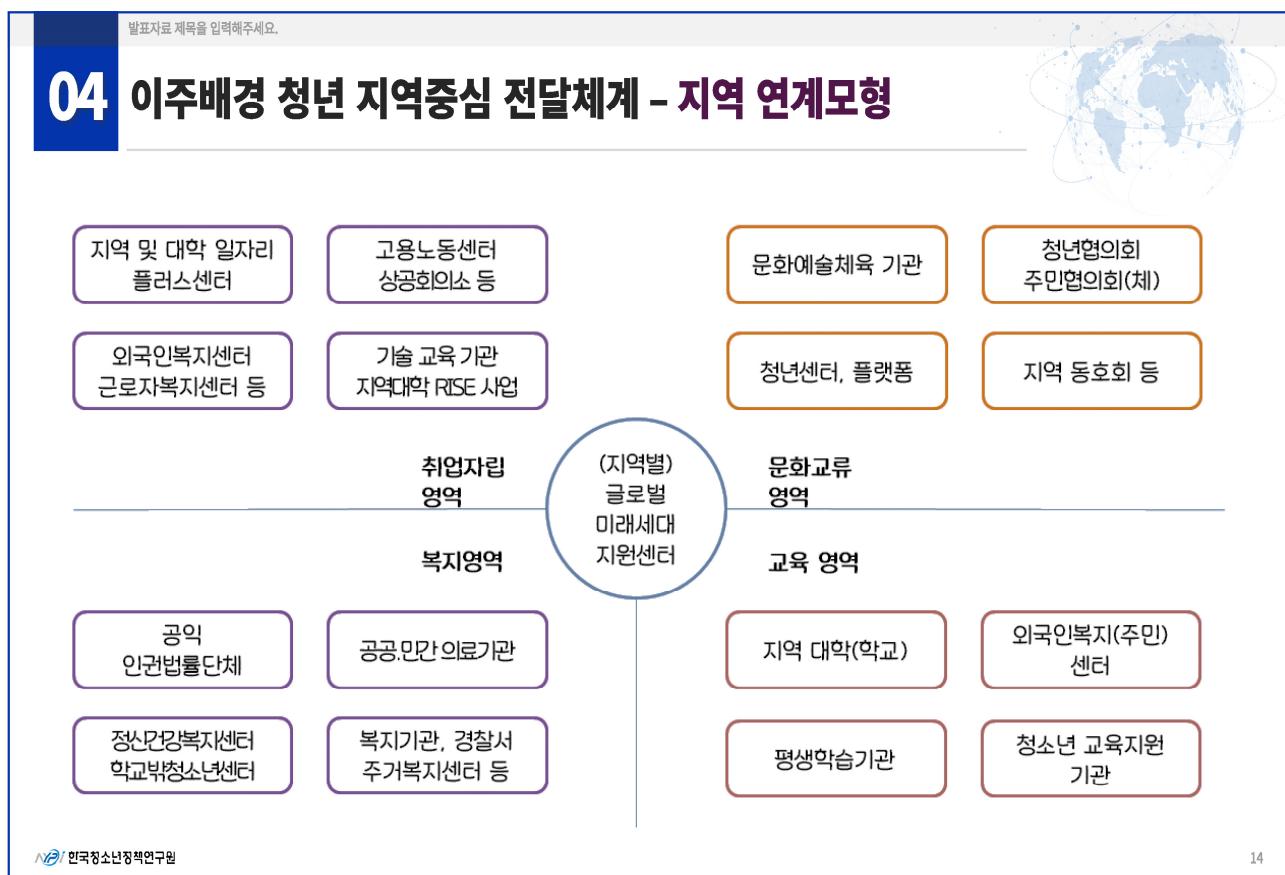
- 온둔고립 지원
- 심리상담 지원
- 폭력 등 위기지원
- 주거 정보제공
- 금융 정보제공
- 법률 지원
- 긴급의료 지원

문화교류 사업

- 지역청년 교류
- 지역주민 교류
- 문화예술 활동
- 동아리 등 어기지원
- 네트워킹
- 자원봉사, 거버넌스
- 인식개선 등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



발표자료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 05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 ▶ 중앙 조직

국무조정실, 가칭 인구미래전략부, 이민처(청), 성평등가족부 등

향후 중앙부처 변화를 반영하되 사업 및 대상이 분절 되지 않도록 배치 필요

중앙부처 내 **전담 조직**, 광역 차원의 **전담 인력** 편성 필요 - 청년 관련 정책은 국무조정실이 주무부처

☞ 이주배경 청년 및 청소년 전담 부처 모호 - 정책 역량 미흡 - 전담 조직 구성 시급

### ▶ 중앙 차원의 협의 구조 구축

정기적인 정책 수립, 실태 조사, 현황 반영 등을 위한 협의체(회) 구조 신설

또는, 기존 협의구조에 이주배경 청소년 청년 관련 참여 확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6

발표자료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 06 단계별 정책추진 방안



### 인큐베이팅

밀집지역, 글로벌청소년센터 등에  
이주배경 청년 사업 인큐베이팅.

### 법, 제도 정비

법 개정, 제정 진행 동시에  
지자체 조례제정

### 전달체계 확장

인구 대비 5% 지역 우선으로  
전당 전달체계 구축

### 컨트롤타워 정비

중앙 차원의 재단 & 센터 운영  
중앙부처 전담 조직 신설  
지원 협의 구조 구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7

발표자료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 07 지역중심 전달체계 구축 및 지원을 통한 기대효과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청년으로 이어지는  
서비스 지속성  
정책효과 극대화



자립역량 강화  
인구미래 대응  
지역 및 산업발전



차별과 배제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사회통합



## 부처 토론

- 법무부 | 안재필 체류관리과 사무관
- 교육부 | 김희준 지역인재정책과 사무관
- 노동부 | 최어지니 직업능력정책과 사무관
- 여가부 | 선강희 다문화가족과 사무관



## 토론문: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류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안재필(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

그동안 시민단체 또는 학계에서 ‘이주배경아동’ 또는 ‘이주배경청소년’ 주제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던 것 같은데 ‘이주배경청년’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이주배경청년의 정의를 기조발표문에 연령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령, 유형은 북한이탈주민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까지 구분하였는데, 학술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여도 헌법상 또는 국적법상 북한이탈주민은 명백히 한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체류자격 관련 토론(논의)와 관련하여서는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배경청년의 규모에 대한 통계 제시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는 그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것 같고, 이러한 연유로 2025. 4. 1.자로 시행된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체류관리지침」 제정 당시에도 대상자에 대한 개념 등을 정의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류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조발표문의 ‘외국국적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착 및 거주 의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 앞으로 계속 살 생각입니까?”라는 질문에 58%~67.4%의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자녀 그룹이 58%를 차지하고,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그룹이 67.4%로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그룹(63%)보다 더 높은 것은 일면 유의미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쩌면 정체성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측면이 있는 게 아닌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배경청년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데, 역으로 우리나라 아동이 해외로 간 경우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결코 용납될 수 없겠지만, 과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절 잘사는 나라로 해외입양을 보내면 그 아이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면서 소위 선진국으로 ‘고아 수출’을 한 슬프고도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입양인들 중 일부는

성인이 되어 모국에 와서 뿌리찾기를 하고 있고, 그들의 발언들은 익히 아는 바이기에 기술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주제가 이와 같은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주배경청년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디까지나 타국일 수밖에 없고, 이들이 어느날 갑자기 어른으로 출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에 지나온 아동기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서는 주로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류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발표자께서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아동기에 입국하여 일정 기간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이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과 등록·미등록 유형을 총망라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중한 제언을 주셨는데, 예외적·한시적 주제인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 관련 사안은 이미 언론을 통해 익히 알려진 주제이기에 본 토론문에서는 2025. 4. 1.자로 시행된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방안」에 대해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께서는 국내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동 또는 청년의 교육·취업·정주 등 체류 전반에 대해 일종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건전한 구성원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당사자들은 물론,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게도 바람직한 일이라는 취지로 제언을 해주셨는데, 결론 부분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정책적 측면에서는 고민해보아야 할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들은 어쩌면 주된 체류자격 소지자인 부모에 동반하여 체류하고 있던 아이들인데 모든 단계마다 이들에게 특례를 부여하게 된다면, 체류자격 일반의 정합성, 다른 외국인과의 형평성 등 고려사항 뿐만 아니라, 마치 이들에게는 일종의 권리가 되어 부모의 체류자격이 종료되더라도 자녀가 소위 '앵커 베이비'와 유사한 상황에 처할 우려 또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발표자께서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과 관련하여 ①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②활동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③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변경 요건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두에서 잠깐 언급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고민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사회와의 어떤 연관성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우리사회에서 성장하여 우리나라 일반 청소년들과 그 정체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이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체성 형성 시기를 고려하여 대상자가 결정되었고, 첨부한 대상자 요건의 예외적 구제 대상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초·중·고교 과정 중 어느 하나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구제 방안까지 마련하여 그 대상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체류기간에 대한 합법·불법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며,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 유형과도 무관하고, 단지 합법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기에 그 대상자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교육개발원(2025) 이주배경학생 증가 추세 통계를 보더라도 2015년 약 8만 명이던 숫자가 2024년 약 19만 명으로 약 2.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향후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대상자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활동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는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유학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 및 정주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여건에 맞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특히, 고교 졸업 후 즉시 취업(E-7-Y)도 가능한데, 이 국내성장인력(E-7-Y) 체류자격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취업 업종(단순·전문 모두 포함) 및 범위를 폭넓게 허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취업에 관해서는 발표자께서 제언하신 거주(F-2-Y) 자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들의 체류자격 변경에 대해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각종 체류자격 요건을 갖춘다면 해당 체류자격으로 얼마든지 변경이 허용됩니다. 이들에 대해 예시된 구직(D-10), 국내성장인력(E-7-Y),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 요건은 다른 일반 외국인에게 요구되는 필수 자격요건 중 일부를 면제해 줌으로써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유형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것인지는 순전히 본인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내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은 이미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기에, 이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다양성과 창의성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미 정체성이 형성된 청년기 이후보다는 정체성 형성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기의 사회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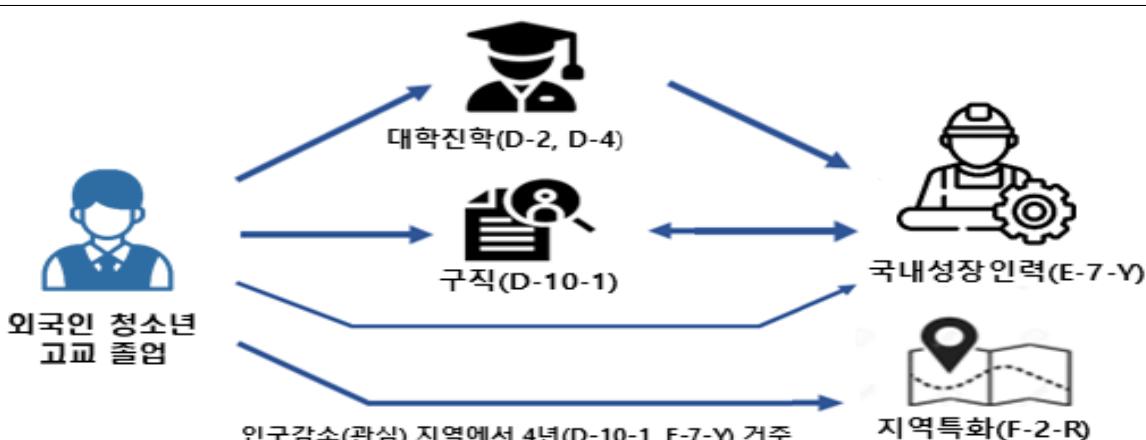
### 〈 국내 성장기반 외국인 청소년 대상 요건 〉

#### □ 원칙적 대상자

- 다음 ① ~ 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①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합법체류자
    - ② 18세가 되기 전 국내에서 7년\* 이상 체류하였을 것
      - \* 체류기간 중 91일 이상 출국한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
    - ③ 10세~18세 기간 중 3년 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한 이력이 없을 것
    - ④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출 것
- ※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재학 중 취업·연수를 위해 자격변경허가 신청하는 경우는 학교장 발행 졸업예정증명서 등 제출 시 졸업으로 인정

#### □ 예외적 구제 대상자(원칙적 대상자의 ①~③은 충족하였으나, ④는 미충족)

- 국내 초·중·고교 과정 중 어느 하나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구제
  - ① 국내 초등학교는 졸업하지 못하였으나,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 이수
  - ② 국내 초등학교는 졸업하였으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 중 어느 하나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 ⇒ 사통 5단계 심화과정 이수



※ 그 밖에 인도적 사유 등 국내 체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방문동거(F-1) 허용

## 토론문: 이주배경청년의 고등교육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김희준(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사무관)

### 1. 문제의식 제기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인구감소시대 이주배경 청년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방안 모색”입니다.

주제가 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주배경 청년은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소수 집단’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를 떠받칠 중요한 인적 자원입니다.

양계민 센터장께서 발제하신 것처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막상 청년이 되는 순간 지원 체계는 공백 상태에 가깝습니다. 청년기에 안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한다면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크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김택형 박사님의 발제에 대한 논평을 중심으로 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 2. 발제 내용에 대한 논평

이주배경 청년이 고등교육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 특히 언어·학업·생활 적응의 삼중고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히 입학 기회만 넓히는 것이 아니라, 재학 중 전문적인 지원센터를 통한 한국어, 학업 역량, 생활 적응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에 크게 공감합니다.

더 나아가, 대학과 지역 기업이 연계된 계약학과나 특화 트랙을 통해 졸업 이후 취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양계민 센터장님의 기조발제에서 강조하신 “체류 불안정”과 “정보 접근성의 격차” 문제 역시 청년의 진로 설계에 결정적 장애로 작용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 정책과 이민·노동 정책이 긴밀히 연계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사강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류자격 개선, 변경환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직업·기술교육을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 마련, 강은이 소장님의 지역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언 역시 어느 하나 빼놓을 것 없는 중요한 논점입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각 발제문에서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과제들이 ‘분절적으로’ 추진되어서는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 3. RISE 정책과의 연계 — 지역별 유학생 정책 사례

이와 관련해 제가 담당하고 있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는 정책을 소재로 삼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또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정책이 향후 이주배경청년의 지역 내에서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 역량 강화방안 모색을 위해 RISE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셔서 일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025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RISE는 현재 17개 시·도 모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문제점 진단과 해결방안 처방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모든 시도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유학생 대상 정책들은 김택형 박사님의 발제문에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유치 전 단계 → 유치 단계 → 양성 단계 → 활용 단계’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산업 분야 중 인력이 부족한 분야는 어디이고, 얼마가 부족하며, 해당 인력 층당을 위해서는 어떤 대학과 어떤 전공을 가진 유학생을 유치해야 할지 등을 면밀히 기획하고 유치한 후, 한국어 교육과정 등 기초 소양과 함께 전공 과정을 교육하고, 취업을 지원하고 정주까지 뒷받침해주는 정책이 큰 열개입니다. 그와 관련한 몇 가지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상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도입하여 유학생이 졸업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5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뿐 아니라 이주배경 청년에게도 적용 가능한 정주 지원 모델입니다.
- 기초지자체인 춘천시는 대학,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 상생형 숙소 제공과 지역 농가·기업 인턴십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주배경 청년에게도 안정적 주거와 실무 경험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 서울은 '서울글로벌센터'를 통해 비자 상담, 취업 지원, 한국어 교육, 주거 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대구 등 광역시도 각기 유학생 정착·고용 연계 과제를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통합지원센터 모델은 이주배경 청년 지원체계로 확장 가능합니다.

이처럼 유학생 정책은 이미 주거 안정, 체류 자격, 실무 연계, 통합지원체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주배경 청년 대상으로 확장 적용한다면, 지역 정주와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분절적인 추진이 아닌 '부처 간 연계'입니다. RISE의 지향점이기도 하지요.

## 4. 국민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

다만, 양 센터장님의 조사 결과에서도 보이듯, 일부 국민은 여전히 일자리 경쟁이나 사회적 갈등을 우려하며 이주배경 청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일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혐오 완화(hate reduction)' 접근입니다. 이주배경 청년을 단순히 지원 대상이 아니라, 인구감소 시대에 한국 사회를 지탱할 동반자로 소개하고, 그들의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5. 맺음말

결국 오늘 논의된 여러 발제는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주배경 청년을 우리 사회의 미래 자산으로 인식하고, 안정적 정착과 자립 역량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교육부 또한 지자체 중심의 RISE 정책을 통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며, 이주배경 청년이 한국 사회의 든든한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법·제도 개선과 구체적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문: 지역중심 이주배경 청년의 정책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 선강희(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사무관)

법무부가 공개한 2024. 3월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59만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계되며, 이들 중 가족 단위 정주형 이주민의 규모는 191만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70%를 상회하고, 19~34세 등록외국인과 동포(결혼이주 제외)는 75만5천여명에 이르는 규모로, 국내 생산인력의 감소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그간 우리나라는 결혼이민자를 위시한 다문화가족 중심 제도적 기반과 가족센터와 같은 전국 단위의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확립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착은 안정화 추세이나,

이민자(이주배경 아동·청소년·청년 포함)는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역 가족센터 여건에 따라 자율적·산발적 지원에 그치는 등 국적자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주민가족 외 형태의 이주민에 대한 제도나 지원은 미비한 상황임

이와같은 한국의 정책현실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에 비해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타 이주민가족, 특히 국내 산업역군으로 역할을 하게 될 이주배경 청년세대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제공, 체류, 주거·생활, 취업 등 종합적·포괄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들에 대한 현행 지원을 살펴보면,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안산시, 수원시, 화성시, 부천시 등에서 ‘글로벌청소년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에 다양한 청년지원센터, 청년 플랫폼 등을 운영중이나 지원대상은 24세이하 학교밖 이주배경 청소년으로 제한되어 외국국적 청소년·청년은 실질적으로 이용이 불가한 실정임

또한 경북, 전남 등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비자센터를 통해 이주민가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들 서비스는 아직 체계적 접근이 부족한 실정임

중앙의 유일한 전달체계인 여성가족부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거듭된 사업예산 삭감과 소규모 법인 운영 위탁방식으로 지역 내 전달체계와의 연계성이 부재하여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에 역부족이며,

지역에 산재한 외국인 지원기관은 각각 독자적·단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함으로써 정착이 불안정한 이주민의 제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함

민간 복지단체나 종교단체에서도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이에 가족상담 · 한국어 등 교육지원 · 취업및진로교육 · 자조모임지원 등 지역에 기반한 종합 가족서비스를 지원하며 전문인력과 20여년간의 다문화사업 전문성을 갖추어 온 전국 244개 가족센터의 지원 역량 강화를 통해 외국인 가족을 비롯한 이주배경 청년세대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가족센터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자체, 외국인지원기관, 지역사회 복지기관 등과 외국인 주민과 긴밀히 협력하여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

먼저 가족센터의 중앙관리기관인 한가원과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지자체와는 지역 내 외국인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활동을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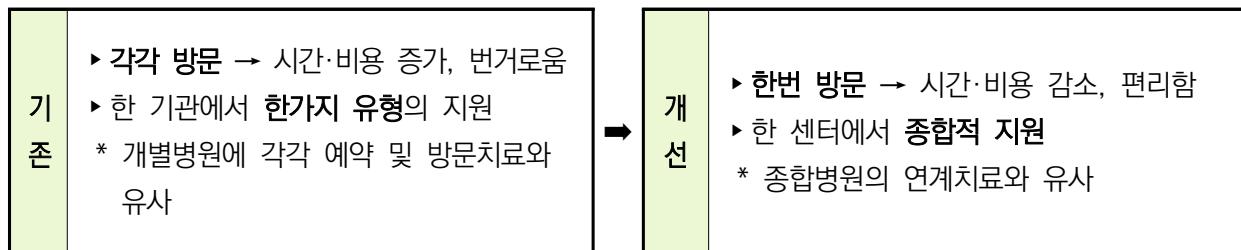
또한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내에서 의료, 교육, 주거와 같은 기초 생활을 위한 필수 복지서비스를, 외국인지원센터·고용센터 등 목적성 유관기관과는 인프라와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함

이를 위해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역량을 이주배경 가족(아동·청소년·청년 포함)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체계구축 및 지역자원 연계활용을 전문인력 배치·활용을 통해 지역사회서비스 접근성과 가족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우선 가족센터의 기존 서비스의 정책대상을 이주민가족, 이주배경 청소년·청소년까지 확대함으로써, 한국어교육·취업훈련교육 등의 프로그램에 이주청년 참여가 활성화되고, 이들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한 맞춤프로그램 개발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임

더불어 가족센터는 명시적으로 다문화가족외 이주민들의 활용이 가능하지만, 오랜기간동안 결혼이민자들의 기관으로 인식되면서 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거나 이용이 쉽지 않은 면이 있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혀야 함

다음으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양성, 배치하여 자녀교육·양육, 가족생활지원(한국어교육·법률·의료), 지역사회연계(일자리·선주민교류)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의 정보를 한 곳(가족센터)에서 ONE-STOP으로 제공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하는 전문 기구로써 역할을 수행함



이처럼 지자체와 지역사회, 민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서비스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인력·자원이 한정된 중앙정부 부처별 하향식 접근에서 지역자원을 기반한 지자체 중심의 연계 협력체제로 전환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실현 될것으로 기대함

전국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자원 네트워크 확충 및 활용을 통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정부와 지자체, 유관 지원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서비스는 이주민의 안정적 사회정착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임

## MEMO

## MEMO

## MEMO